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신화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강 동 균

2014년 8월

제주신화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지도교수 박 여 성

강 동 균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강동균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4년 8월

Storytelling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the Images of the Jeju Myth : *Igong-Bonpuri*

Kang, Dong-Gyun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Yo-S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Storytelling).

2014 .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iii
Abstract	x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3. 선행 연구	4
II. 이공본풀이와 신화소	8
1. 이공본풀이	8
2. 이공본풀이의 신화소	12
1) 여신	12
2) 부친탐색	16
3) 서천꽃밭	19
III.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이미지	21
1.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의 요소	21
1) 배경	23
2) 주제	26
3) 캐릭터	30
4) 서사	31
2.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36
1) 배경의 이미지	37
2) 주제와 이미지	39
3) 캐릭터의 이미지	41
4) 서사와 이미지	43

IV.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의 구현	46
1.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의 구현 방안	46
1) 본풀이의 문학적 변용	46
2) 문학 이미지의 형상화를 위한 변용	52
2.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 창작의 구현	54
1) 혼돈의 시절	54
2) 하늘의 계시	56
3)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	57
4) 잃어버린 삶	59
5) 탈출, 희망의 존재	61
6)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	63
7) 마지막 관문	64
8) 운명의 만남	66
9) 생명꽃과 악의 꽃	67
10) 업보	68
11) 환생	69
12) 신산만산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	71
V. 결론	72
참고문헌	75

표 목 차

<표 1> 매개를 중심으로 한 제주 무속신화(본풀이) 스토리텔링의 분류	21
<표 2> 배경의 기능	23
<표 3> 스토리텔링에서 시간과 공간	23
<표 4> 배경의 기능-서천꽃밭	24
<표 5> 스토리텔링에서 시간-서천꽃밭	24
<표 6> 스토리텔링에서 공간-서천꽃밭	25
<표 7> 이공본풀이에서 이승 · 저승세계와 관련된 배경요소 분석	25
<표 8> 이공본풀이의 화소와 관련된 주제	28
<표 9> 이공본풀이의 주인공과 관련된 주제	29
<표 10> 이공본풀이의 캐릭터 형태에 따른 분류	30
<표 11> 서천꽃의 효능 및 분류	31
<표 12> 그레마스의 서사 도식	32
<표 13> ‘시련’의 세 가지 단계	32
<표 14> ‘시련’의 세 가지 단계와 이공본풀이	33
<표 15>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 구현 단계	37
<표 16> 이승세계의 이미지	38
<표 17> 저승세계의 이미지	39
<표 18> 이공본풀이의 주인공과 관련된 주제의 이미지	40
<표 19> 이공본풀이의 화소와 관련된 주제의 이미지	41
<표 20> 캐릭터의 형태에 따른 분류와 캐릭터의 이미지	42
<표 21> 변용된 문학의 장면 이미지와 형상화 요소에 대한 분류	53

그림 목 차

<그림 1> ‘혼돈의 시절’에서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바로잡는 대별왕	55
<그림 2> ‘하늘의 계시’에서 원강아미	56
<그림 3>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의 원강아미	58
<그림 4> ‘잃어버린 삶’에서 원강아미와 할락궁이	60
<그림 5> ‘탈출, 희망의 존재’에서 원강아미, 천리동이와 만리동이	62
<그림 6>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	63
<그림 7> ‘마지막 관문’에서 얼레빗	64
<그림 8> ‘마지막 관문’에서 문지기인 생명나무	65
<그림 9> ‘운명의 만남’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할락궁이	66
<그림 10> ‘생명꽃과 악의꽃’에서 할락궁이가 서천꽃을 받는 장면	67
<그림 11> ‘업보’에서 싸울꽃, 수레멸망약심꽃	68
<그림 12> ‘환생’에서 원강아미에게 생명의 꽃을 뿌리는 장면	70
<그림 13> ‘환생’에서 다시 살아난 원강아미	70
<그림 14> ‘이공신’으로 좌정한 할락궁이	71

[국문초록]

제주신화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강 동 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박 여 성

21세기는 신화에 열광하고 있다. 신화는 서사의 원천으로 끊임없는 재해석과 창작의 모티프로 작용하며, 신화와 교감하고 감응하는 창작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미지와 형상으로 살아나고 있다. 과거의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 매체에 의해 재해석되고 적용되어 영화, 애니메이션, 웹 등에서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문화콘텐츠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화 스토리텔링과 관련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제주신화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시에 창작자의 입장에서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의 접근에 대한 이해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구비전승되고 있는 제주신화 이공본풀이의 원형적 특성과 신화소 해석을 고찰하였고, 문화콘텐츠로서 제주신화가 가진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동시에 창작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우선 구비신화라는 원형에서 창조적 변용을 시도하기 위한 과정을 신화의 문학과 이미지의 형상화에 대한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분석을 도출,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공본풀이의 문학적 변용과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스토리텔링의 구현을 시도하였다.

신화적 사유의 결과물인 콘텐츠들은 또 다른 예술창작의 모티프로 작용하고 새로운 매체로의 전환 가능성이 모색된다. 이는 예술적 창작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창작자의 신화에 대한 이해와 재창작의 지속성에 대

한 고찰을 통해 신화콘텐츠 창작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모색이 향후의 과제로 남겨진다.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에 대한 현시점을 진단하면, 본풀이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역사적 사례에서 신화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가치와 감응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성의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같다. 제주신화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스토리텔링 창작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원형에 내재된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여,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콘텐츠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torytelling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the Images of the Jeju Myth : *Igong-Bonpuri*

Kang, Dong-Gyun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Park, Yo-Song

In the 21st century, people are enthusiastic about myths. Myths, the source for narration, work as the motif for endless reinterpretation and creation, and are reviving with new images and shapes by the creators who commune with and respond to them. Facing the digital era, the stories of the past are being reinterpreted and applied by new technological media developing day by day, and showing their status as cultural contents realizing new values through movies, animations, and online, etc. As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contents related to this mythical storytelling is being emphasized, the myths in Jeju are being actively reappraised and studied recently. At the same time, the understanding and methods to approach to the storytelling of the myths in Jeju need to be discussed lively from creators' position.

In this research, the prototypical characteristics and mythmes interpretation of *Igong-Bonpuri* that has been transmitted orally were examined, the importance and values of the myths of Jeju as cultural contents were understood, and the necessity for creation was deducted. First, the process to

try creative transformation from the prototype of an orally transmitted myth was discussed and analyzed from interactive aspect on the literature and the embodiment of images of myths, and the realization of storytelling through literary transformation and visualization of the images of *Igong-Bonpuri* were tried from a creator's position.

The contents, the results of mythical thinking, work as the motif for another artistic creation, and the convertibility into new media is sought for. This is a crucial procedure in the interaction of artistic creation. Accordingly, the search for a variety of ways to vitalize the creation of mythical contents through creators' understanding of myths and consideration over the continuity of re-creation remains as the future task.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torytelling of the myths of Jeju can be diagnosed as that the contents based on the cultural prototype of *Bonpuri* are insufficient. The values of and respond to the cultural contents of myths in historical cases seem to have been possible owing to persistent efforts and accumulation of diversity for a long time. Creators of storytelling that visualizes the images of Jeju myths should understand and assess the values implied in cultural prototypes, and create the cultural contents pursuing artistic values, based on a long-range view, not on a short one.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은 늘 신화를 창조해왔다.¹⁾ 신화는 문화예술의 원형으로서 다양한 매체와 매개를 통해 시대적 변용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재창작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스·로마신화는 구비전승(口碑傳承)되어 오다가 기원전 8~7세기경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리고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와 『노동과 나날』이라는 서사시로 변형되었고 이후로도 문학과 미술 그리고 희곡과 연극 등을 통해 변용되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변형된 신화의 텍스트는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신화적 사유를 제공하며 당대의 문화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다.

제주는 그리스·로마신화 못지않게 독특한 1만 8천여 신들이 살고 있는 신화의 보물창고이다. 탐라국(耽羅國)이라 불렸던 제주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에 힘입어 한·중·일의 교차점에서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었고, ‘심방’²⁾에 의해 구비전승된 구비서사시가 무궁무진하다.³⁾

특히 제주 서사무가(敍事巫歌) 신화는 민중의 고난과 극복의 의지, 좌절된 꿈과 부활하려는 의지, 현실 일탈과 초월의 꿈이 다채롭게 반영되었고(허남춘, 2011: 27), 신들의 내력을 풀이하는 노래로서, 심방의 굿 제의(祭儀)는 문학, 음

1) 카렌 암스트롱은 신화를 구석기시대-수렵민의 신화, 신석기시대-농경민의 신화, 초기문명시대, 기축시대, 탈기축시대, 대변혁시대로 구분하였고 신화란,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진실인 것이라고 서술했다(카렌암스트롱, 2005: 1-18).

2) 제주도의 ‘심방’은 일반적으로 무의 성격적 특성상 세습무의 범주로 분류한다. 이에 반해 조성윤, 이상윤, 하순애는 제주도 심방은 독특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함이 옳다는 입장을 보인다. 제주도 심방은 세습무의 가장 큰 특성인 제의를 주관하는 사제적 직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일반 세습무가 하지 않는 점사(占師)의 역할을 겸하며 동시에 강신무에게나 가능한 영매의 기능도 발휘한다. 또 뉘뜸임을 행하는 것과 같은 치료자의 역할도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도 심방을 강신무 혹은 세습무로 구분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조성윤, 이상윤, 하순애, 2003: 219).

3) 그리스·로마신화는 문헌신화로서 기록된 신화이다. 반면에 제주의 무속신화는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는 특성을 감안하여 “구비서사시에 관해서는 제주도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다(조동일, 1997: 110).

악, 미술, 춤, 연극을 아우르는 제주의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에 대한 적용과 활성화가 관건이다.

1차 콘텐츠로서 문화콘텐츠는 One Source Multi Use (OSMU)의 원재료이다. 즉 One Source는 오랜 세월을 통해 수많은 예술가의 창작물로 재탄생해 왔다. 21세기도 신화의 이미지와 텍스트는 ‘해리포터’ 시리즈와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 그리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처럼 Multi Use라는 창조적 변용의 모티프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제주신화는 서구의 신화 콘텐츠에 비교할 때 스토리텔링의 대상으로서는 불모지이지만, 심방을 통해 구비전승되어 온 이야기 자체가 신화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무가(巫歌) 본풀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풀이에 대한 원형의 수집과 정리, 해석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신화적 사유와 상상력을 통해 21세기에 어울리는 신화 스토리텔링이 요청된다.

기록문학을 원형으로 삼아 신화적 주제와 모티프의 다양한 변용을 통해 신들의 형상화와 장면 이미지가 다양하게 표현된 그리스·로마신화와 달리 제주신화에서는 굿을 통한 심방의 제의에서 보이는 현장성의 신화적 이미지와 더불어 본향당에서 신당이라는 장소적인 이미지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변용과 창조라는 시대적 관점에서 제주의 신화 스토리텔링을 평가하면 그리스·로마신화의 활용에 비해 걸음마 단계이지만, 제주신화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구비신화가 서사시로 변용된 것에 견줄만한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있다. 즉 시대성과 신화의 창조적 이미지가 부족한 제주신화에 형상화를 시도하면 보다 창의적인 의미를 가진 예술작품을 창작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창작된 텍스트로서의 구비문학과 신화의 이미지는 제주신화에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면서 재창조의 모티브, 즉 새로운 콘텐츠 창작의 거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신화 스토리텔링의 시도가 절실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사무가 이공본풀이의 스토리텔링을 재해석하여 만든 텍스트를 기반으로, 서사 전개에 적합한 신화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변용하여 창작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본풀이라는 신화원형에 내재된 보편성을 재해석하여 창작자의 신화적 사유와 노력에 의해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일단 제주무가 본풀이의 가치를 요약하고 제주신화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과 신화의 이미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의 변용을 통한 창작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공본풀이의 신화소에 대한 이해와 고찰을 통해 스토리텔링 요소를 도출하고 이공본풀이를 적용하여 이미지 형상화 요소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이공본풀이의 변용과 창작의 구현을 위해 본 연구자가 기획하고 ‘이공본풀이-서천꽃밭이야기’ 미술작품개인전에 출품한 회화작품과 스토리북 형태의 전시도록을 사례로 제시하였다.⁴⁾

본 연구에서는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에 수록된 이공본풀이 조흘대 구송본과 고산옹 구송본을 저본으로 삼았고, 이공본풀이의 서사를 정리한 서사문학으로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와 『제주도 신화』도 참조했다.

4) 제주신화이야기 ‘이공본풀이-서천꽃밭이야기’ 전시회(스토리북, 발행인: 강동균, 글/그림: 강동균)는 2013년 4월8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개막되어 12일까지 열렸다.

3. 선행연구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주신화의 조사와 채록에서 시작하여 신화적 원형성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신화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창조적 변용과 실재를 다룬 새로운 추세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무가의 본풀이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다양한 장르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대적 계승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일단 제주 서사무가와 연관된 기존의 연구와 신화의 문학과 이미지 연구 그리고 신화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를 요약해 보자.

이수자(1993)는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에서 이공본풀이계 서사물과 변용의 의미를 분석했는데, 제주도 무속제의에서 구송되는 이공본풀이의 원형성과 함께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형성을 고찰했다. 나아가 신화·전설·불경·소설 등 여러 갈래로 창작되고 불화로도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다양한 갈래들 사이의 관계도 연구했다(이수자, 1993).

서대석(2000)은 「21세기 구비문학 연구의 새로운 관점」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며 변화하는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에 비추어 구비문학의 연구관점과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언한다. 이를테면 전승론적 과제, 현장론적 과제, 민족문학으로서 연구과제, 문학연구의 이론 정립을 위한 시험적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구비문학 연구동향을 총괄할 수 있다. 새로운 연구방법으로는 자료의 영상화, 연구방법의 디지털화, 연구대상의 확장, 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통계적 연구, 정서의 계량화에 의한 작품론과 과학화, 비교문화적 연구의 확장, 실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서대석, 1993).

최원오(2007)는 「한국 무속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점검」에서 디지털 미디어 매체로 표현된 문화콘텐츠 시대에 신화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스토리 창작을 위한 신화소 추출과 분류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문적 차원의 신화소 추출 및 분류에 앞서 무속신화의 신화소를 스토리 창작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한다. 둘째, 실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신화소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신화소들과 주요 캐릭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하면서, 스토

리 창작에서 캐릭터의 독창적 설정이 결정적이라고 부연했다(최원오, 2007).

김수연(2005)은 「한국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문학적 변용 비교」에서 작품에 내재된 원형을 찾아내고 신화적인 구상을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 신화의 원형을 서양의 신화와 비교한다. 이때 신화의 수용양상과 신화적 원형이 가진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신화의 보편성에 기반하는 생명력을 확인하고 신화와 문학적 변용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사례 분석하였다(김수연, 2005).

김미정(2012)은 「제주 삼승할망본풀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에서 제주신화 본풀이를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본풀이의 이론적인 배경을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 뒤 문화콘텐츠의 생산 원천적인 스토리텔링 개념을 본풀이에 도입시켰고 애니메이션 장르로 본풀이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문화콘텐츠 OSMU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그것을 삼승할망 본풀이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무가로서의 본풀이가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으로 적극 활용된다(김미정, 2012).

선미라(2006)는 「원형 · 신화 · 콘텐츠」에서 원형성에 근거하여 신화의 원형 · 신화 · 콘텐츠의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신화와 일본신화의 차이점을 비교 · 분석하여 신화에 내재된 원형성은 단절이 아니라 지속이며, 유형이 아니라 일종의 기호체임을 이론적 전제로 삼아 문화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문화원형연구를 제안하고 있다(선미라, 2006).

송태현(2009)은 「신화와 문화콘텐츠」에서 제주신화 ‘자청비’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의 구축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고대 신화를 현대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창조하여 신화의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였고, 신화의 재창조에 서 기존의 신화에 대한 창작자의 새로운 해석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교육용 콘텐츠에서는 신화에 대한 충실도가 중요한 반면,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작품 창작에서는 자유로운 재구성의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송태현, 2009).

이상의 견해들을 검토한 결과, 본고에서 주목하는 신화원형의 변용과 재창조를 위한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주신화는 심방에 의해 구비전승된 본풀이라는 신화원형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에 이르러 민속학적 관점의 전승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구비문학의 문화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시작해 오고 있다. 현재 인쇄출판물에서는 제주신화 채록본⁵⁾과 연구서 그리고 대중 서적이 출간되고 있고, 디지털콘텐츠는 영상과 웹에서 일방적 전달방식의 콘텐츠로서 홍보전시·교육용 콘텐츠가 주로 시도되고 있다.

둘째, 서양의 그리스·로마신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신화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전승과 변용된 서사시와 이미지의 문화예술 작품이 무수하게 존재한다. 또한, 동일한 신화에 토대를 둔 작품이 많지만, 시대성과 작가의 해석에 따라 새로운 가치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오늘날 신화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시대의 매체의 다양성과 확장성으로 문화콘텐츠로서의 무궁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작품은 현재 상황 속에서 신화적 사유를 바탕으로 신화원형에서 변용과 재창조로서의 과정을 거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갔다. 따라서 제주신화에 토대를 둔 문화예술창작기반의 중요성과 함께 예술학적 관점에서 다원적인 인문학적 해석과 재창작이라는 스토리텔링의 이해가 요구된다.

원시적이고 고대적인 신화적 사유는 초기미술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신상과 벽화 등 원시유물과 고대문명사회의 유적을 통해 볼 수 있다. 신화를 미술의 역사적 사례에서 살펴보면 신화의 서사적 내러티브는 구체적인 이미지 형상화를 통해 회화, 신상, 공예 등 미술장르에서 무수히 변용되고 변형되어 시대적 문화유

5) 조성운, 이상운, 하순애는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에서 제주도 무가를 채록·정리해 책자로 발간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조성운, 이상운, 하순애, 2003: 97).

- ①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상)』, 大阪屋號書店, 1937.
- ②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박물관, 1968.
- ③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④ 진성기,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⑤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⑥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그 외에도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에서 심방의 본풀이를 채록·정리해 책자로 발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9.
- ②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 ③ 허남춘, 송정희, 강소진, 한진오, 정희중,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산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날 신화적 모티프가 시칭각적인 종합장르로 발전되어 새로운 창조적 재현으로 변용과 변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제주신화는 구비전승되는 서사무가로서 심방과 단골(신앙민)에게 원시적이고 고대적인 신화적 사유가 존재하는 문화원형적 가치를 지닌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자 문화콘텐츠이다. 이러한 제주신화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은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재현도 필요하며, 동시에 제주신화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창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이공본풀이의 문화원형적 이해를 시작으로 스토리텔링을 위한 요소의 도출과 구현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창작자에게 있어 제주신화스토리텔링의 의미와 과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공본풀이와 신화소

1. 이공본풀이

구비문학은 문자가 없던 태초에 발생하여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문학이다. 또한 민중이 구비문학을 오랫동안 향유해 오면서 문자시대의 기록문화에도 바탕을 제공했다(이두현, 장주근, 이광규, 2004: 385-386).

이와 달리 책 속에 기록된 신화는 박제된 신화이다. 제주의 신화는 말과 노래 속에 살아 있는 ‘서사무가(敍事巫歌)’⁶⁾로서, 신들의 근본(根本)을 풀어내는 ‘무가본풀이’로 불리는데, 무당(제주에서는 심방)과 당골들이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본풀이’라고 지칭해도 좋다(허남춘, 2011: 25-26). ‘본풀이’⁷⁾는 문자 그대로 ‘본을 풀다’의 명사형으로서, ‘초공본풀이’, ‘차사본풀이’처럼 해당하는 신의 ‘근본’을 풀어 해설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만든 ‘신화’라는 학술용어와 달리, ‘본풀이’는 ‘신화’에 상응하는 무속사회의 용어로서,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살아 있는 신화를 가리킨다고 하겠다(장주근, 2001: 43).

구비문학의 귀중한 자료인 서사무가는 민중에게 신화의 요소들을 전승시키는 원초적 서사시의 생생한 성격을 보여준다. 일단 서사무가로서 신화의 개념을 살펴 보자: ① 신화는 전승집단의 주관에서 전적으로 승엄한 사실이지만, 현대인의 과학적 객관성에 비추면 신화는 원칙적으로 허구이다. ② 전승 양상면에서 보면 문헌신화는 화석화된 2차적 결과인 반면, 대부분의 1차 신화는 제의(祭儀)의 구성요소인 구송물(口誦物)이다. ③ 전승의 시간·공간면에서 보면 신화는 원초적 사회의 소산물로서 국가나 민족을 단위로 전승된다. ④ 주인공의 성격에 비추면

6) 장주근은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에서 제주도의 서사무가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같은 서사무가라도 예컨대 동해안의 별신굿의 심청굿 같은 경우 무녀는 청중을 향해 부른다. 그러나 제주도 심방의 본풀이는 청중은 등지고 췌상을 향하고 신을 향해서 스스로 장고 반주를 하면서 앉아서 부른다. 본풀이는 그 가창 형태에서부터 고행어린 신화의 원모습을 아직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장주근, 2001: 54).

7) ‘본풀이’에서 명사 ‘본’은 근본, 내력, 본원, 본래, 역사 등을 의미하며, 동사 ‘풀다’는 해설, 해석, 설명 등을 의미한다.

신화의 주인공은 초자연적인 직능·속성을 가진다. ⑤ 원초적 과학적 설명에 비추면 신화는 인문, 자연현상에 대해 태초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⑥ 사회적 기능면에서 보면 신화는 집단신앙을 요구하여 사회통합의 기능을 발휘한다(이두현, 장주근, 이광규, 2004: 397-398).

현용준(2005)의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에서는 이런 보편적 속성을 배경으로 제주의 고유한 신화적 이야기로서 이공본풀이⁸⁾를 해설했다. 아카마즈(赤松智城)·아키바(秋葉隆)가 채록한 박봉춘본, 진성기가 채록한 조대홍본, 고상웅본, 장주근이 채록한 고대중본, 문무병이 채록한 이승승본, 한소생본, 『풍속무음본』 그리고 현용준 본인이 채록한 안사인본 등 8편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공통적인 서사 전개(현용준, 2005: 59-62)의 원문을 참고한 이공본풀이 서사는 다음과 같다.

- ① 김진국(혹은 짐진국, 김정국, 김정국)과 임진국(혹은 원진국, 임정국)이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살면서 절친하게 지냈는데, 김진국은 몹시 가난하고 임진국은 부자로 잘 살았다.
- ② 김진국과 임진국에게는 늦게까지도 자식이 없어 서로의 처지를 걱정했다.
- ③ 어느 날 절간의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두 사람의 사주를 보고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 ④ 임진국은 김진국이 시주감이 없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시주감을 당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이 불공드리러 가자고 약속했다.
- ⑤ 김진국은 정성을 다하여 극진한 시주를 차렸지만, 임진국은 부자였음에도 적당히 차려서 불공을 떠났다.
- ⑥ 절에 가서 백일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달아 보니 가난한 김진국의 시주는 백근에 이르고 임진국은 한근이 모자란 아흔아홉 근밖에 되지 않았다.
- ⑦ 불공을 마치고 돌아오는 김진국과 임진국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서로 사돈을 맺기로 약속했다.
- ⑧ 김진국은 아들을 낳아 사라도령(혹은 사라대왕, 사래도령)이라 이름을 짓고, 임진국은 딸을 낳아 원강아미(혹은 원강암이, 원장부인, 원앙아미, 원앙부인)라 이름을 지었다.

8) 이공본풀이는 큰 굿에서 초공맞이 다음의 제차(祭次)에서 구연되고, 불도맞이 때에도 불린다.

- ⑨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열다섯 살이 되니 양가는 약속대로 혼인을 시켜야 할 때가 다가왔다. 임진국은 가난한 김진국의 아들 사라도령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꺼려 했으나 임진국의 딸 원강아미는 자청해서 약속을 지키고 사라도령과 혼인한다.
- ⑩ 얼마 안 되어 원강아미가 잉태하여 몸이 무거운 때, 사라도령에게 서천꽃밭에 벼슬을 살려 오라고 차사가 데리러 왔다.
- ⑪ 사라도령이 자진하여 가겠다고 하니 차사는 먼저 가 버렸다. 사라도령이 혼자 가려고 하였지만 원강아미는 기어코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여 함께 길을 나섰다.
- ⑫ 서천꽃밭은 너무 먼 길이라 원강아미가 발병이 나서 걸을 수 없는 처지라 하루는 억새포기에 의지하여 밤을 새는데, 어디서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 ⑬ 원강아미가 “어느 집에서 닭 울음소리가 나느냐”라고 물으니, 사라도령은 “자현장자(혹은 제인장재, 천년장재, 만년장재, 김장재) 집에서 우는 소리라”고 가르쳐 주므로 원강아미는 “나와 뱃속의 아기를 그 집에 종으로 팔고 떠나나라”고 간청한다.
- ⑭ 사라도령은 할 수 없이 부인을 종으로 사라고 하니, 그집의 큰 딸과 둘째딸은 사지 말라고 했지만 막내딸이 사라고 하였다.
- ⑮ 어머니(원강아미)는 삼백 냥, 뱃속의 아기는 백 냥(혹은 아기는 300냥, 어머니는 100냥/어머니는 금 100냥, 아기는 은 100냥/어머니는 돈 100냥, 아기는 은 100냥)을 받고 팔았다.
- ⑯ 부부가 서로 밥상을 마주 받고 헤어질 때 아기이름을 지어 두고 가라하니 사라도령은 아들을 낳거든 ‘할락궁이’(혹은 신산만산할락궁이, 할락둥이, 할낙궁이)라고 짓고, 딸을 낳거든 ‘할락댁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고, 증거물로 얼레빗 반쪽(혹은 얼레빗과 실 한타래의 반쪽)을 꺾어 주고 떠나갔다.
- ⑰ 자현장자는 밤에 원강아미 종을 찾아와 방문을 열려고 하니 원강아미는 “우리 고을 풍습은 아기를 낳아 백일이 되어야 몸을 허락 하는 법이라”고 하여 모면하고, 다시 찾아오니 “아이가 커서 발갈기를 해야 몸을 허락하는 법이라”고 하여 자현장자의 요구를 모면했다.

- ⑱ 화가 난 자현장자는, 원강아미에게 낮에는 명주 다섯 필을 짜고 밤에는 명주 세필을 짜도록 하고, 할락궁이에게는 낮에 나무 50바리를 해 오고, 밤에는 새끼 50동을 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고역을 시켜 괴롭혔다.
- ⑲ 할락궁이는 자현장자가 아버지라면 이렇게 고역을 시킬 리가 없다며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했다.
- ⑳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지난 내력을 말하고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아버지라고 알려 주었다.
- ㉑ 할락궁이는 갖은 고생을 하며 아버지를 찾아가 증거물을 맞추어 보니, 아들이 분명하다고 하며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 주었다.
- ㉒ 내용은 “네가 올 때 발등까지 차는 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어머니가 첫 다짐을 받을 때의 눈물이고, 허리까지 차는 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어머니가 두 번째 다짐받을 때 흘린 눈물이며, 목까지 차는 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어머니가 세 번째 다짐을 받아 죽어 갈 때 흘린 피”라고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꽃을 줄 터이니 가지고 가서 복수를 하고 어머니를 살려 모셔 오라는 것이었다.
- ㉓ 할락궁이는 웃음 웃을 꽃, 싸움 싸울 꽃, 멸망 꽃, 뼈오를 꽃, 살 오를 꽃, 오장육부 만들 꽃, 환생 꽃 등을 꺾어 가지고 왔다.
- ㉔ 할락궁이가 돌아오자 자현장자가 죽이려 하므로 일가친척이나 모이도록 하고 웃음 웃을 꽃을 뿌리니 대환 웃음이 벌어지고, 싸움 싸울 꽃을 뿌리니 싸움판이 벌어지고, 멸망꽃을 뿌리니 일가친척 모두가 죽었다.
- ㉕ 숨어 있던 막내딸이 나와 살려 달라고 하니 어머니 죽은 곳을 알려 달라 하여 찾고 보니 대밭에 버려져 뼈만 남아 있었다. 뼈 오를 꽃, 살 오를 꽃, 오장육부 만들 꽃, 환생꽃을 뿌려 회초리로 세 번 때리니 어머니가 “아이고, 봄 잠이라 오래도 잤다” 하면서 살아 일어났다.
- ㉖ 어머니를 살리고 막내딸은 사환으로 삼아 아버지를 찾아가니, 아버지는 ‘저승아방’이 되고 어머니는 ‘저승어명’이 되고 할락궁이는 아버지 자리를 이어 받아 꽃감관이 되었다.(또는 막내딸도 죽여 복수하고 어머니를 서천꽃밭으로 모시고 사서 가족이 잘 살았다.)

2. 이공본풀이의 신화소

1) 여신

제주신화에는 여신이라는 고대신화의 원형이 남아있다. 본풀이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서사무가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제주에는 구전신화의 원형이 잘 간직되어 있다. 본풀이의 여성화소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의 중요성과 함께 제주여신화소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창작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인간은 성(性)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인류의 역사와 함께 모든 이야기의 근원적인 신화소가 된다. 로버트 A. 존슨(2006)은 『신화로 읽는 여성성』에서 신화는 과학이나 이성적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집단적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에 이미 특별한 힘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행동과 심리패턴을 연구할 때 인류 초기로 돌아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류 초기의 근원적 표현에서 인간 심리의 기본패턴을 파악해야, 오늘날 변이된 형태로 등장하는 인간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로버트 A. 존슨, 2006: 7).

한편 여성성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존재한다. 융의 통찰에 따르면 하나는 모든 남성은 유전적으로 열성의 여성 염색체와 여성호르몬을 가지고 있듯이, 남성에게는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 존재한다. 남성 내면에도 일정한 부분에는 여성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여성의 내면에도 심리학적으로 남성성이 들어있다(로버트 A. 존슨, 2006: 10). 채집·수렵 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전환하면서 모계 중심의 사회가 부계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새 시대를 위한 신화가 등장한다. 신화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암시하는 서곡이자 새 시대에 등장할 심리학적 요소에 대처하려는 지혜가 담긴 조언이기도 하다(로버트 A. 존슨, 2006: 7).

오늘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시대성이 반영되고 전승된다는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원형성과 변이 그리고 새 시대의 새로운 신화적 사유의 전승이 예견된다. 따라서 신화 속의 남신과 여신에서 신화적 사유로서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신화적 상징과 은유 그리고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된 남성과 여성의 유형과 의미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창작자로서의 입장에서 여성신에 대한 신화소의 해석은 인류학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여성학적인 측면에서 시대성에 따른 상호적인 여러 상황을 전제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기본적인 자세로서 수반된다. 이러한 노력은 신화적 사유를 바탕으로 접근을 시도할 때 본질에 접근하려는 풍부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차가희(1998)는 신화 속에 나타난 여신화소의 유형을 분류하고 신화의 구조 및 성격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원형의 도출을 논의했다. 여신화소가 어떤 상징 체계로 나타나며 그들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제시했다(차가희, 1998: 62). 차가희의 ‘여신화소 유형과 성격’⁹⁾을 제주의 신화에 나타나는 여신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를 통해 드러나는 여신의 유형을 보면, 시조 탄생형에서 인내형의 여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성격은 모성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신연우(2010)는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를 부분적으로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으로 묘사하는데, 원강아미에게 닦친 현실은 전설적 사태일 수 있지만 자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그 사례는 이를테면 원강아미가 자현장자집에 자신을 팔 때와 자현장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서사에서 찾을 수 있다(신연우, 2010). 그리고 가난한 사라도령에게 시집보내는 것을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혼인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원강아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운명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자아로 해석될 수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는 영웅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 이를테면 가부장적 인

9) 차가희는 「한국 구비전승의 여신화소연구」에서 여신화소의 유형과 성격을 분류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차가희, 1998).

A. 여신 화소의 유형

1. 지역 수호형: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집단을 보호하거나 집단의 기원대상으로서의 여신형이다.
 - 호국형 (여신의 수호범위가 국가적 단위)
 - 호향형 (여신의 수호범위가 특정지역이나 고을)
2. 천지 창조형: 여인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제주도 및 그 밖의 산천유래를 설명한 것이다. 대체로 거녀의 모습으로 제주에서는 설문대할망, 남해안 도서지역은 마고할미가 있다.
3. 시조 탄생형: 자신이 직접 어떤 대상의 시조가 됨은 물론 시조의 탄생을 있기 위해 도와주는 중재자적 역할을 한다.
 - 능동형 (고난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로 고난을 극복하여 신으로 좌정)
 - 인내형 (고난에 대해 인내라는 소극적인 대처로 고난을 극복하여 신으로 좌정)

B. 여신 화소의 성격

1. 모성적 성격: 보호자로서 모성이라는 속성과 가정의 일에 충실하는 여성의 역할과 기능이 반영되었다.
2. 가부장적 성격: 여성의 강한 정신력과 역동성이 여성의 생산력과 창조성으로 이어진다.
3. 회화적 성격: 신성성의 퇴색과 그 의미가 축소되고 약화되면서 회화화 되는 경우이다.

습에서 보여주는 수동적 여성의 역할에 비추어진다. 신으로 좌정하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고난의 구도 속에서 희생을 통한 통과의례를 거쳐 신으로 좌정한 경우이다. 여기서 그리스·로마신화와 비교를 하자면, 인간이자 여자가 신이 되는 보기 힘든 유형으로는 프시케 신화가 있다. 그리스·로마신화의 영웅은 대부분 남성본위의 영웅주의인데 프시케신화는 여성영웅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제주의 신화는 여성신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서 신으로 좌정한 설정이 많다. 신화학적으로 보면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도 인간에서 신으로 좌정한 여성영웅이다. 따라서 제주신화는 인간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원형과 변이를 간직한 신화적 원형의 전승을 볼 수 있다.

이런 신화적 속성에 비추어 원강아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고난-극복-좌정’의 서사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진국과 임진국은 자식을 늦게 얻는다. 그리고 김진국의 아들 사라도령과 임진국의 딸 원강아미는 15세때 혼인을 한다는 구덕혼사를 맺는다.
- ② 부자인 임진국은 가난한 김진국의 아들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는 것을 망설이지만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을 선택한다.
- ③ 원강아미가 아기를 잉태하여 몸이 무거운 때 사라도령에게 서천꽃밭에 벼슬을 살러 오라고 차사가 데리러 왔다.
- ④ 사라도령이 혼자 가려 했지만 원강아미는 기어코 따라 가겠다고 하여 함께 길을 나섰다.
- ⑤ 서천꽃밭은 너무 먼 길이라 원강아미가 발병이 나서 걸을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자,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에게 “나와 뱃속의 아기를 그 집에 종으로 팔아 두고 가라”고 간청한다.
- ⑥ 사라도령은 할 수 없이 부인을 자현장자에게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사라고 한다. 어머니(원강아미)는 삼백 냥, 뱃속의 아기는 백 냥을 받고 팔렸다.
- ⑦ 부부가 서로 밥상을 마주 받고 헤어질 때 아기 이름을 지어 두고 가라하니 사라도령은 아들을 낳거든 ‘할락궁이’라고 짓고, 딸을 낳거든 ‘할락택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고, 증거물로 알레빗 반쪽을 꺾어 주고 떠나갔다.
- ⑧ 자현장자는 밤에 원강아미 종을 찾아와 방문을 열려고 하니 원강아미는 “우

리 고을 풍습은 아기를 낳아 백일이 되어야 몸을 허락하는 법이라”고 하여 모면하고, 다시 찾아오니 “아이가 커서 밭갈기를 해야 몸을 허락하는 법이라”고 하여 자현장자의 강요를 모면했다.

- ⑨ 화가 난 자현장자는, 원강아미에게 낮에는 명주 다섯 필을 짜고 밤에는 명주 세필을 짜도록 하고, 할락궁이에게는 낮에 나무 50바리를 해 오고, 밤에는 새끼 50동을 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고역을 시켜 괴롭혔다.
- ⑩ 할락궁이는 자현장자가 아버지라면 이렇게 고역을 시킬 리가 없다며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 ⑪ 원강아미는 할 수 없이 지나온 내력을 말하고 아버지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이라고 알려 주었다.
- ⑫ 할락궁이를 떠나보낸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
- ⑬ 할락궁이는 아버지 사라도령에게서 받은 환생꽃으로 어머니를 살린다.
- ⑭ 후에 사라도령은 ‘저승아방’, 원강아미는 ‘저승어명’, 할락궁이는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아 꽃감관이 되었다.¹⁰⁾

원강아미의 삶을 중심으로 서사 구조를 재구성한 텍스트를 수동성과 능동성의 대립구도로 조명할 수 있다.

수동적인 텍스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에서는 원강아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 의해 미리 결정된 구덕혼사와 15세 때 약속된 혼인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사회적 관습으로서 수동적 삶에 대한 전형적 모습을 보인다. ⑨에서 자현장자가 고역을 시키며 괴롭히는 장면에서, 원강아미는 아들과 함께 종살이를 견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고 있지만 삶의 수동적 모습에 내재된 의미는 할락궁이가 성인이 되는 15세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희생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⑫에서 할락궁이를 서천꽃밭으로 떠나보낸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위기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로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반면에 아들 할

10) 여기에 서술된 내용은 현용준(2005)의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에서 이공본풀이 서사 전개를 정리, 서술한 것을 참고로 요약, 서술하였다(현용준, 2005: 59-62).

락궁이가 자현장자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 있게 하는 희생의 의미로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희생으로도 볼 수 있다.

능동적인 텍스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②에서 원강아미는 아버지의 망설임에 동의하여 가난한 사라도령에게 시집가는 것을 보류할 수 있었지만 구덕혼사의 수동적 운명을 자청해서 받아들인다. 여기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아의 능동적인 의지와 대처를 살펴볼 수 있다. ④에서 사라도령은 서천꽃밭에 혼자 가려했지만 원강아미는 기어코 같이 따라가겠다고 한다. 능동적 행동에 내재된 의미는 아기를 잉태한 몸이기에 남편인 사라도령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⑤에서 발병이 나서 걸을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자 사라도령에게 “나와 뱃속의 아기를 그 집에 종으로 팔아 두고 가라”고 간청하는 원강아미에게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다.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은 원강아미의 모습에서 남편을 위한 희생의 마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⑧에서 자현장자는 밤에 원강아미를 찾아와 방문을 열려고 하니 원강아미는 “우리 고을 풍습은 아기를 낳아 백일이 되어야 몸을 허락하는 법이라”고 하여 돌려보냈고, 다시 찾아오니 “아이가 커서 밭갈기를 해야 몸을 허락하는 법이라”고 하여 자현장자의 요구를 모면했다.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원강아미의 적극적인 해결능력이 보인다.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원강아미의 심리적 상태와 남편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의 끈을 간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강아미의 수동적 · 능동적 행동패턴에 공통적으로 ‘희생’이라는 상징이 내재한다. 신으로 내정된 남편 사라도령에 대한 믿음이 희생이라는 작용을 이끌어 내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부친탐색

아버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성장한 후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통칭 부친탐색담, 부친찾기담, 심부담이라고 하는데, 구비서사물은 물론 고소설,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고루 나타나는 이 소재는 우리 문학의 중요한 서사적 원형이자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¹¹⁾(이수자, 2009: 30).

11) 이수자의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에서 연구를 위해 논의된 부친탐색담이 나타나는 구비서

노영근(2003)은 「신화와 친부탐색 모티프」에서 친부탐색의 주인공¹²⁾들이 겪는 삶의 과정을 편모슬하의 탄생 ⇒ 비범한 성장 ⇒ 父系에 대한 인식 ⇒ 정보 요구 ⇒ 위협 ⇒ 정보획득 ⇒ 난제해결 ⇒ 출발 ⇒ 상봉과 신분인지 ⇒ 지위획득의 전개구조로 설명한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노영근, 2003).

① 탄생시 부계인식 결여와 비범한 성장 ⇒ ② 父系에 대한 인식 ⇒ ③ 탐색 여행 ⇒ ④ 부자상봉

① 탐색의 주인공들은 부친이 부재한 상태에서 출생한다. 이때의 부재는 부친의 죽음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주인공들의 아버지는 주인공이 태어나기 전에 낯선 땅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인공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노영근, 2003: 135).

② 부계에 대한 인식에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주인공들은 가난하고 고된 성장 과정을 겪는다. 특히 할락궁이의 경우에는 장자네 종으로 생활하고 있어 고단한 삶의 형상이 단적으로 보여진다. 이들이 곤궁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부친탐색이다(노영근, 2003: 139).

③ 친부탐색신화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탐색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어머니는 정보제공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노영근, 2003: 141).

④ 부친탐색의 주인공들의 표면적인 목적은 부자상봉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버지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주인공들이 부친을 찾은 댓가로 얻는 지위를 암시하고 있다(노영근, 2003: 141).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만나 간단한 신포의 확인으로 아들임을

사물과 문학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무속신화에는 육지쪽의 '제석본풀이'가 있고, 제주도 큰곳에서는 '배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 포함)', '초궁본풀이', '이공본풀이'가 있다, 문헌신화로는 '동명왕신화', '왕건신화'가 있다, 민담에서 문헌자료의 대표적 예는 '청취우약상득자'가 있고 구비전승 자료로는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성을 찾은 아이' 등이 있다. 고소설은 '유충렬전' 및 '옥소전'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현대소설 중에는 '메밀 꽃 필 무렵'과 한승원의 '불의 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현대창작동화집으로는 임정자의 '흰산도로랑'과 같은 작품이 있다. (이수자, 2009).

12) 노영근은 「신화와 친부탐색 모티프」에서 친부탐색화소를 무속신화에서는 '당금얘기', '칠성풀이', '이공본풀이'와 건국신화에서는 '주몽신화'의 유리왕 신화를 같은 이야기 군으로 분류하여 이를 중심으로 친부탐색 화소를 분석하고 해석한다(노영근, 2003: 149).

인정받고 있는 부분은 혈통확인이다. 이처럼 능력보다 혈통을 중시하는 동기는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이 아버지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들은 선계로 진입하여 자신의 신통한 혈통을 인정받아 신직을 부여받는다. 지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이다(노영근 2003: 148). 아들 할락궁이가 아버지 사라도령에게서 부여받은 지위획득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할락궁이는 장자로부터 온갖 학대를 견뎌냈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서천꽃밭에 도착한다. 결국 서천꽃밭의 꽃으로 선이나 악에 관련된 여러 상황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버지보다 훨씬 유능한 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수자, 2009: 16).

이수자(2009)는 구비서사물에서 부친탐색의 문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존재의 근원 및 자아를 찾는 이야기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인간생명을 만들어 내는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남성, 즉 아버지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민족이 인간 생명의 근원적 존재, 즉 뿌리로서 어머니를 중시했다고 간주하지만, 언어적 흔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부친 탐색담은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존재의 근원, 존재의 뿌리를 찾는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성년식 및 입사식담으로서의 부친 탐색담이 있다. 원시 입사제의인 성년식(成年式)에서 흔히 보이는 모티프이다. ‘배포도엮침’,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같은 무속신화에서는 주인공들이 부친탐색 여행을 시작하는 나이가 열다섯 살 정도이다. 주인공들은 그보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대해서 묻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그들이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사실을 알려주며, 아들들은 결과적으로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요컨대 입사식담으로서 부친탐색담은 아버지의 신통(神統)을 계승하기 위한 통과의례인 셈이다(이수자, 2009: 18-21).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가 장자로부터 받는 온갖 학대, 서천꽃밭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고생, 그리고 장자네 식구에 대한 징치(懲治), 죽임을 당한 어머니를 살려내는 일 역시 모두 신통을 계승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통과의를 상징한다. 그 고통을 이겨내는 자만이 주화(呪花)로서의 생명꽃들이 피어나는 서천꽃밭을 관장할 능력을 가진 신이 될 수 있다(이수자, 2009: 18-21).

3) 서천꽃밭

탐라국 이전의 제주가 그려낸 신화의 세계인 서천꽃밭¹³⁾에서 서천(西天)이란 용어는 불교의 서방극락에 의해 침윤된 흔적은 있지만, 매우 독자적이고 흥미로운 공간이다. 또한 꽃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제주도 본풀이에 두루 묘사되었다(허남춘, 2011: 125-126).

서천꽃밭과 직접적인 관련된 제주무속신화로는 ‘생불할망본풀이’ 및 ‘이공본풀이’가 있는데, ‘생불할망본풀이’의 내용은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맹진국따님애기라는 두 여신 중 누가 이 세상의 생불신, 즉 아기 산육신(産育神)이 되는가를 다투는 장면을 묘사한다. 꽃피우기 시합에서 이긴 맹진국애기따님은 서천꽃밭을 만들어 그곳에 핀 생불꽃으로 아이들을 집지 · 잉태시킨다. 이공본풀이에서는 모든 서사의 중심이 생명꽃과 서천꽃밭이다. 서천꽃밭은 자청비 신화에서도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남종과 문도령을 도환생꽃으로 살려내고 하늘나라의 변란을 악심꽃으로 제압한다. 문전본풀이 신화에서도 서천꽃밭은 불가결한 공간인데, 녹디생인을 비롯한 일곱 아들은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곳에서 도환생꽃을 얻어 어머니를 살린 후 조왕신으로 좌정하게 한다(이수자, 2007: 422-424). 차사본풀이에서는 세 아들이 죽어 꽃으로 환생한다는 동기도 그 시기의 것이다. 농경을 중시하는 제주사회에 풍성하게 남아 있는 신화소라고 하겠다(허남춘, 2011: 126).

이수자(1993)는 이공본풀이가 ‘수레멜망악심꽃’이라는 꽃의 근본 내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신화라고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정의한다. 탐욕한 장자는 잉태한 남의 부인을 탐내어 겁간하려 했으며, 아들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어미를 죽여 토막을 내어 버린다. 악심(惡心)을 가진 존재인 장자를 죽이는 꽃으로 ‘수레멜망악심꽃’과 관련된 사건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창조된 신화임을 알 수 있다. ‘수레멜망악심꽃’이라는 이름도 악심을 없앤 꽃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다. 장자의 죽음에서 보듯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기원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는 인간이 악심을 가진 존재로 보는 논리가 내재해 있다(이수자, 1993: 27-28).

13) 제주도 무속에서는 서천꽃밭을 인간생명의 근원이 되는 환생꽃과 멸망을 주는 주화(呪花)를 가꾸는 곳으로 이야기 된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이수자(1993)는 ‘수레뿔망악심꽃’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공본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신화소로 ‘서천꽃밭’과 ‘생명꽃’을 지적한다. ‘서천꽃밭’은 이공본풀이의 서사진행에서 불가결한 공간이다. 이 신화에 나오는 모든 존재가 지향하는 원초적이고 중심적인 공간으로 설정된 서천꽃밭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생명꽃’이 피어있는 공간이라는 가치를 지닌다(이수자, 1993: 37).

Ⅲ.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이미지

1.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의 요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이야기(Story)’와 ‘말하다(Telling)’의 합성어다. 이공본풀이의 무가(巫歌)¹⁴⁾는 이야기(Story)의 의미를 가지며, 담화(Telling)는 심방에 의해 구비전승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제주 무속신화는 그 자체로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문화로서 유·무형 자원의 문화적 가치를 가진다.

현대에 이르러 제주신화는 창작자에 의해 다양한 매체에 적용되어 여러 장르의 문화콘텐츠로 구현되고 있다. 이에 장르의 다양성적 특성에 관여되는 매개를 심방과 창작자로 나누어 제주 무속신화 스토리텔링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매개를 중심으로 한 제주 무속신화(본풀이) 스토리텔링의 분류

		Story	Telling	Storytelling
매개	심방	무가(본풀이)	구비전승	문화원형 ¹⁵⁾
	창작자	문화원형(제주신화)	다양한 매체	문화콘텐츠 ¹⁶⁾

14) 무가는 무속의식에서 심방(무당)이 매개하여 신령과 인간이 만나고 대화하는 의례로서, 이 대화가 주로 ‘노래’라는 구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무가라 불린다. 제주 지역에서 불리는 무가는 구연 방식에 따라 (1) 순수 대화, (2) 운율적 사설, (3) 반 가요, (4) 순수 가요로 나뉘며, 내용에 따른 분류는 (1) 일반 무가, (2) 서사 무가, (3) 희곡 무가로 나뉜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15) 배영동은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에서 문화원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문화의 원초적 형태에서부터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가진 전형적인 문화, 특정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갖는 문화의 원형질 등 여러 갈래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집단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원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정하려면,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 사용되는 문화원형이란, 콘텐츠로 개발하는 대상이 되는 문화, 즉 콘텐츠의 소재가 되는 문화를 의미하며, 문화원형이 문화콘텐츠로 변형되기 이전에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문화로서, 문화콘텐츠의 원천자료이다. 그리고 분석적·학술적 용어인 문화원형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자원’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배영동, 2005: 52).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전되며 신화, 전설, 우화, 연극, 그림, 스테인드 글라스 창, 영화, 일상대화, 게임 등 무수한 형태로 존재하며, 구조주의와 수용미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고찰을 이용하여 단순한 이야기 덩어리인 스토리가 아니라 이야기 형식을 체계적으로 도출해낸다(최혜실, 2002: 410). 신화의 재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신화에 대한 창작자의 새로운 해석이다. 고대신화를 현대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식의 예술로써 재창조하는 작업을 통해 신화는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간다(송태현, 2009: 153).

따라서 문화원형에 다양한 매체를 적용할 때, 창작자는 매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원형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고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본풀이에 내재된 의미에 대한 탐구는 창작의 영감을 일깨우는 과정이며 신화 스토리텔링으로서 예술¹⁷⁾을 지향하는 창작자의 자세이기도 하다.

이에 본풀이와 신화소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도출하기 위해 배경, 주제, 캐릭터, 서사로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분류·분석하였다.¹⁸⁾

16) 최혜실은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에서 융합과 통합의 시대에 스토리텔링을 위한 각 장르를 관통하는 공통요소의 도출의 필요성과 함께 상호작용을 염두하여 문화콘텐츠를 분류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최혜실, 2006: 103).

<문화콘텐츠>

1. 텍스트콘텐츠: 출판, 신문, 잡지, 출판만화
2. 디지털 이전의 비텍스트 콘텐츠: 공예품, 미술품, 공연
3. 시청각 콘텐츠: 방송, 영상, 광고, 영화, 비디오, 음반
4.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 모바일

17) 김탁환은 「디지털시대 전통 기록과 스토리텔링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에 있어 예술에 이르는 이야기를 세단계로 나누어 정리한다(김탁환, 2008: 309).

첫째, '놀이'의 단계: 혼자 좋아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산업'의 단계: 만든 이야기가 돈이 되는 단계다.

셋째, '예술'의 단계: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이는 이야기를 만드는 단계다.

위의 정리를 논의하면 신화스토리텔링은 사회, 문화, 경제, 미적, 윤리적, 예술사적, 신앙적 등 예술이 지닌 다양한 가치로 나타난다. 이어서 예술적 가치는 시대를 반영하는 창작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창작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예술적 가치들의 상호작용이 발생되며, 많은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18) 본 논문에서 스토리텔링 요소는 육하원칙으로서 역사적 사건 및 기사문을 표현하는 문장구성의 기본 요소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로 구성되는 여섯 가지 요소를 참조하였고, 이야기의 새로운 창작이 아닌 신화(이야기)의 해석과 신화스토리텔링을 위한 창작자의 입장에서 '배경→주제→캐릭터→서사'로 신화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도출하고 적용하였다.

1) 배경

배경은 인물과 사건이 존립하도록 세계(시간적 · 공간적 기반)를 부여하는 요소이다.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려면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세계도 없고, 세계가 없으면 인물도 존재할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나려면 먼저 사건을 일으킬 인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경이라는 요소는 인물과 사건의 전제 조건이 된다(조정래, 2010: 85).

<표 2> 배경의 기능

배경의 기능	
사건의 발생 조건	사건이 전개될 수 있는 제반 조건 마련
주제의 암시	사건의 진행방향암시, 주제에 대한 복선
인물의 상황제시	분위기 형성, 상황제시, 인물의 내면 묘사
사건의 준비	사건의 성격 암시, 사건 전개의 원인

*출처 : 조정래(2010: 91)

스토리텔링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사건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기반위에서 존립한다. 그리고 시간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공간은 삶의 조건을 구성하게 된다(조정래, 2010: 85-92).

<표 3> 스토리텔링에서 시간과 공간

시간		공간	
물리적	시 ·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사건	물리적	특정한 공간의 배경
개인적	주인공의 특수성적 시간 문제	개인적	개인의 특정한 공간
사회적	특수한 시대에서의 사회현상, 세계관	사회적	특정한 공간이 내포하는 사회적 문제 및 의미
정치적	특정한 시대에서의 정치적 사건	정치적	정치적 의미를 지닌 공간

*출처 : 조정래(2010: 97)

이공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사건의 발생조건, 주제의 암시, 인물의 상황제시, 사건의 준비에 대한 배경의 기능으로서 인물과 사건의 전제 조건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배경 공간으로서 스토리텔링에서 시간과 공간의 사건을 내포하고 있다.

<표 4> 배경의 기능-서천꽃밭

배경의 기능		서천꽃밭
사건의 발생 조건	-사건이 전개될 수 있는 제반 조건 마련	-사라도령은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임명 받고 원강아미와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주제의 암시	-사건의 진행방향암시/ 주제에 대한 복선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고난의 여정, 원강아미는 사라도령과 할락궁이를 위해 희생/ 서천꽃밭과 이공신
인물의 상황제시	-분위기 형성/ 상황제시/ 인물의 내면 묘사	-서천꽃밭/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아버지와 만남/ 서천꽃밭에서 아버지와와의 대화
사건의 준비	-사건의 성격 암시/ 사건 전개의 원인	-아버지가 서천꽃을 할락궁이에게 서천꽃을 줌-인간을 징치. 생명부여/ 저승세계인 서천꽃밭과 인간세상의 관계

<표 5> 스토리텔링에서 시간-서천꽃밭

스토리텔링에서 시간-서천꽃밭		
물리적	-시 ·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사건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이공신으로 좌정
개인적	-주인공의 특수성적 시간문제	-주인공들은 시련의 극복을 통해 서천꽃밭 이공신과 저승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좌정
사회적	-특수한 시대적 공간에서의 사회 현상, 세계관	-저승세계(서천꽃밭)의 이공신이 수레멸망 악심꽃 등 서천꽃으로 이승세계의 악에 대한 정치와 인간 생사를 주관
정치적	-특정한 시대에서의 정치적 사건	-이공신의 대물림

<표 6> 스토리텔링에서 공간-서천꽃밭

스토리텔링에서 공간-서천꽃밭		
물리적	-특정한 공간의 배경	-서천꽃밭(저승세계)
개인적	-개인의 특정한 공간	-서천꽃밭 이공신과 저승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내력이 시작된 공간
사회적	-특정한 공간이 내포하는 사회적 문제 및 의미	-이승세계 인간의 생명과 악을 주관하고 징치하는 다양한 효능의 서천꽃이 피며 15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이 머물며 살아가는 공간
정치적	-정치적 의미를 지닌 공간	-이승세계의 질서에 관여하는 저승세계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이공본풀이의 서사와 화소에서 사건의 중심공간인 이승세계와 저승세계라는 대표적 배경을 분류하고 배경과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다.

<표 7> 이공본풀이에서 이승·저승세계와 관련된 배경요소 분석

배경요소	이승 세계	저승세계
시·공간	-신이 악을 징치하는 공간 -자현장자 집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적 공간	-신이 거주하며 관장하는 공간 -서천꽃밭 -죽은 인간이 사는 공간
세계관	-악의 유래 → 무질서	-이승세계 인간의 생사를 주관
주인공	-사라도령 -월강아미 -할락궁이	-제1대 꽃감관(사라도령)/ 저승의 아버지(사라도령) -저승의 어머니(월강아미) -제2대 꽃감관(할락궁이)

이공본풀이에서 공간적 배경은 이승의 인간세계와 서천꽃밭이라는 저승세계로 나뉘며 물리적인 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한다. 여기서 서천꽃밭은 인물과 사건이 존립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서, 서천꽃밭 꽃감관과 서천꽃의 효능에 대한 내력을 담고 있는 사회적 성격의 시·공간이다. 15세 이전에 죽은 인간의 사후 삶에 개입하고, 신이 인간의 흥망성쇠와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세계관을 볼 수 있다. 서천꽃밭은 인간의 생명, 삶, 죽음에 관련된 신화적 사고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신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여 수레멸망약심꽃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고 환생꽃으로 인간을 살릴 수 있다. 반면 인간세계에서는 악의 유래가 시작되는 무질서한 사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적 공간이다. 여자보다 남자가 높고 귀한 다시말해, 남성 중심적인 사회적 풍토가 엿보인다. 또한 화폐를 거래하여 사고 팔 수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하인이 나뉜 계급사회였다.

2) 주제

주제는 이야기의 중심사상이다. 오늘날 매체의 다양화와 다변화로 같은 뿌리의 주제를 내포하는 이야기도 적용되는 매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용되어 구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가 매체에 적용되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창작자의 주제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이 반영되는 창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에 대한 요소를 살펴보았다.

신화 스토리텔링의 시작은 신화 이야기의 감응에서 출발한다. 창작자는 감응 받은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 자신이 적용하고자 하는 매체에 감응 받은 재해석하여 스토리텔링 한다. 이에 창작자는 매체에 적용되는 본풀이의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분류·분석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우선 제주신화 본풀이에 담긴 표면적 주제에 대한 탐구를 시작으로 본풀이의 화소에 내재된 의미와 해석에 대해 고찰하고, 매체에 이야기의 주제를 적용하기 위해 창작자가 본풀이에 내재된 화소에 감응하여 창작을 위한 해석의 관계성에 접근하는 단계와 해석요소의 주제에 대한 상호작용성에 대해 논의·도출하여 이공본풀이에 적용한다.

신화의 주제에 대해 카렌 암스트롱(2005)은 “신화는 이 세상과 더불어 존재하는 다른 어떤 세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 세상은 이 세상을 지탱

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강력한 실재, 신들의 세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실재에 대한 믿음은 ‘신화의 근본적인 주제19)’이다(카렌 암스트롱, 2005: 10).”라고 하였다. 이에 믿음을 주는 이야기로서의 신화는 그 자체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신화는 무속의례와 마을 신앙민들의 관계가 전승되어 존재하는 신화적 요소를 간직한 문화유산으로서 신화 속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의 믿음20)’으로 다가오게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신화요소는 창작의 모티프로 작용하여 창작자에게 영감을 일깨우는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의 매력적인 원천소스로서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의 창작에 있어 주제에 대한 창작자의 접근과 해석에 대한 단계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신화 스토리텔링 창작에서 주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기존에 존재하는 본풀이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한다. 제주신화 본풀이는 신의 내력과 관련된 직능이 담겨서 전승된다. 따라서 본풀이에 담긴 표면적 의미와 함께 서사 전개에서 신화소에 나타나는 의미를 폭넓게 고찰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종합·분석한다.

둘째, 본풀이의 서사에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적용하여 주제에 접근하고 해석을 시도한다.

셋째, 창작자는 신화의 근본적 주제에 대한 폭넓은 범위의 이해를 바탕으로 변용을 도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매체에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주제에 대한 창작자의 접근과 해석에 대한 단계를 바탕으로 이공본풀이의 화소에서 상호작용적인 주제요소를 분류·분석할 수 있다.

19) 신화의 근본적인 주제로서 실재에 대한 믿음은 과학적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의 모든 사회의 신화와 의식,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작용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보다 전통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카렌 암스트롱, 2005: 11)

20) 제주신화는 대체로 사실이라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신성시되며, 종교적인 의례에서 사제자들에 의해 음송되며, 이렇게 음송되는 신화의 내용은 향유민(享有民)의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고, 나아가 생활의 규범이 되기도 한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표 8> 이공본풀이의 화소와 관련된 주제

화소	내용	주제
부친탐색	통과의례	신의 내력
좌정	인간이 신으로 좌정	
서천꽃밭	주화(呪花)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	저승세계에서 이승세계의 악을 징치하는 내력
이승세계	이승에서 악의 유래	

이공본풀이는 이공신의 내력, 즉 서천꽃밭에서 주화(呪花)를 관장하는 꽃감관에 대한 내력을 노래한 서사무가로, 인간이 신으로 좌정하는 고난-극복-좌정의 서사 전개에서 배경, 사건, 인물 등에 내재된 화소를 통해 주제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이 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라도령, 원강아미, 할락궁이를 각각의 주인공으로서 내세워 주제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천꽃밭의 주화를 관장하는 꽃감관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승세계에서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라도령은 부자집 딸인 원강아미와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신으로 선택을 받아 서천꽃밭의 주화를 관장하는 꽃감관으로 좌정한다.” 이러한 신의 내력에서 창작자는 가난의 극복과 신으로의 좌정, 서천꽃밭과 주화의 효능 등 본풀이의 표면에 나타나는 주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원시적인 내면세계에 대한 신화적 사유를 시작할 수 있다.

둘째, 할락궁이의 영웅적 서사가 전개되며 부친탐색의 신화소를 내재한다. 할락궁이는 통과의례를 통해 인간 삶의 고난과 극복이라는 영웅적 서사의 공통적인 주제를 보여주며, 고난의 극복을 통해 인간세상의 영웅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한다. 그리스·로마신화가 신으로 태어나고 신들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에 비교하면 제주신화는 인간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한다는 주제의 세계관도 담겨있다. 이에 할락궁이의 영웅서사는 인간과 신의

관계성에 대한 신화적 사유의 확장으로서 특별함과 소중한 제주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셋째, 원강아미의 이야기는 시련-희생-좌절이라는 서사 전개를 갖고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저승의 어머니라는 여신화소는 조력자로서 원강아미의 행동에 대한 여성성의 표출을 다양한 해석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원강아미는 사라도령과 할락궁이를 위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여 갖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다. 원강아미의 희생은 남편과 아들이 이공신으로 좌절을 이루게 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에 대한 여성이미지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

<표 9> 이공본풀이의 주인공과 관련된 주제

주인공	관련내용	주제
사라도령	가난함의 지속→ 행복한 생활→ 이공신 임명→ 모험→ 이공신으로 좌절→ 저승의 아버지로 좌절	고난의 극복과 모험을 통해 신으로 좌절
원강아미	부자의 딸로 태어남→ 가난한 사라도령과 결혼→ 남편과 자식을 위한 시련과 희생→ 부활→ 저승의 어머니로 좌절	남편과 자식을 위한 시련과 희생을 통해 신으로 좌절
할락궁이	노비 신분으로 태어남→ 탈출→ 부친탐색으로서 서천꽃밭을 향한 고난의 여정→ 서천꽃밭 도착→ 임무수행(서천꽃으로 자현장자의 악을 정치, 어머니를 부활시킴)→ 제2대 이공신으로 좌절	시련의 극복과 서천꽃으로 이승세계의 악을 정치하는 임무완수를 통해 신으로 좌절

3) 캐릭터

제주신화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²¹⁾로서 개벽신화, 제주창조신화, 시조신화, 일반신화, 당신화, 조상신화 등 신의 내력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즉 주인공인 신의 내력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전승되는 구비서사시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캐릭터간의 유기적인 관계성에 배경, 사건, 주제 등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화의 캐릭터 분석은 주인공인 캐릭터와 등장 캐릭터의 분류, 캐릭터에 내재된 신화소의 의미 등 다양한 상호작용인 측면에서 분류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에 이공본풀이의 캐릭터 형태를 인간형, 동물형, 식물형으로 구분하여 주인공과 등장 캐릭터를 분류하였다.

<표 10> 이공본풀이의 캐릭터 형태에 따른 분류

형태		캐릭터
인간형	주인공	사라도령, 원강아미, 할락궁이
	등장인물	자현장자, 자현장자의 3명의 딸, 가난한 김진국, 부자 임진국
	신	저승차사, 이공신(꽃감관), 저승의 아버지와 어머니
	저승인	서천꽃밭에 사는 15세 이전에 죽은 어린아이
동물형		만리동이, 천리동이, 까마귀
식물형		서천꽃밭의 주화(呪花)

21) 태초라는 아득한 옛날에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우주가 만들어지거나 국가의 시원과 관련한 신이한 인물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룬다. 제주신화를 크게 문헌신화와 무속신화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A. 문헌신화 : ‘삼성신화와 삼공주’ 신화의 하나로, 지중용출(地中湧出)과 해상표착(海上漂着)이란 화소가 결합하여 ‘탐라국 건국 신화’로서의 기능과, 수렵 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이행하는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B. 무속신화 : 본풀이는 ‘천지개벽신화’를 비롯하여 일반신과 당신, 조상신의 내력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풀이류의 무속 신화는 대체로 문예적 서사 구조의 형태로서 남녀의 영웅적 모습이나 사신 신화(蛇神 神話), 원혼 신화, 지중 용출 신화, 용궁녀 표착 신화, 치병신 신화(治病神 神話)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이 분류된 제주신화의 내력담에서 캐릭터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신화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은 주화를 관장하는 이공신의 내력이 담긴 공간이다. 인간세상을 관장하는 효능을 가진 주화가 피어있는 곳으로 오늘날까지도 이공맞이, 불도맞이 등의 곳으로 전승되며 향유민에게 신앙적 신화요소를 부여하는 신격공간이다. 서천꽃은 생불꽃과 수레멸망악심꽃으로 대표되는데,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에 관계한 효능을 갖는 서천꽃의 내재된 의의는 창작자에게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의 매력적인 원천소스로 작용하며 영감을 주고 있다.

<표 11> 서천꽃의 효능 및 분류

효능	서천꽃 이름
생불에 관계	생불꽃
환생에 관계	(도)환생꽃, 힘 오를 꽃, 뼈 오를 꽃, 살(고기)오를 꽃, 피 오를 꽃, 오장육부 오를 꽃, 마 가를 꽃, 숨쉴 꽃, 죽남 회초리
징치에 관계	수레 뿔망악심꽃(죽는 꽃), 불 붙을 꽃, (금)유울 꽃, 웃음 웃을 꽃, 싸움할 꽃, 가난할 꽃
상급에 관계	부자될 꽃, 번승(번성할) 꽃

*출처 : 유효철(2004:77)

4) 서사

신화의 서사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스토리텔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공본풀이 서사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도출된 스토리텔링 요소에 적용하였다.

“그레마스는 서사성의 개념을 최초 상황에서 최후 상황으로의 변형으로 규정하였고 양자사이에는 시련이라고 부르는 동일한 구조의 세 가지 통합체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김정희, 2009: 23).” 고 보았다.

<표 12> 그레마스의 서사 도식

최초 상황	자격 시련 -근본 시련 -영광 시련	최후 상황
-------	---------------------	-------

*출처 : 김정희(2009: 23, 재인용)

여기서 “시련은 반드시 직접적인 투쟁의 형태는 아니다. 시련들은 그것이 내포하는 접합들의 불확실한 특성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주체가 가치대상을 획득하는 근본시련이 스토리의 중심에 위치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얻는 단계가 자격시련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체가 참주인공으로 확인받는 최종적인 단계인 영광시련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영광시련까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보편적으로 완결된 스토리라고 인식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김정희, 2009: 23).” 김정희는 그레마스의 각 시련의 단계에 프로프의 기능을 대입 시켰는데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 ‘시련’의 세 가지 단계

서사 도식	시련의 내용	프로프의 기능
자격 시련	주체가 획득하는 대상은 미래의 수행을 위해 전제된 잠재능력	주인공의 출발, 시련의 지정/수락, 원조자를 받아들임
근본 시련	주인공이 대상을 반-주체에게서 빼앗는 것으로, 이 대상의 가치가 이야기의 최초 상황에서부터 모든 행동 방향을 결정지음	장소의 이동, 결투/표지/승리, 주인공에 대한 공격/ 주인공의 구출
영광 시련	완수된 행위의 총괄적 확인을 목적으로 함. 이 시련 중에 위장된 주인공이 무훈의 공을 모두 독점 하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주인공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받기 위해 이 최종적 시련을 겪어야 함.	익명으로 도착/ 거짓 주장 어려운 임무의 부과/ 성공/ 인지/ 악한의 정체 폭로/처벌/ 참 주인공에 대한 보상

*출처 : 김정희(2009: 23)

위의 도표를 참조하여 시련의 세 단계와 프로프의 기능에 이공본풀이의 서사 전개를 적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시련’의 세 가지 단계와 이공본풀이

그레마스의 시련의 세 단계	프로프의 기능	이공본풀이
자격 시련	-주인공의 출발	-사라도령은 이공신으로 임명됨을 차사로부터 전달받음.
	-시련의 지정/수락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서천꽃밭을 향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한다.
	-원조자를 받아들임	-원강아미는 남편인 사라도령을 위해 자신을 종으로 팔고 노자돈을 마련함.
근본 시련	-장소의 이동	-원강아미는 사라도령과 이별하고 자현장자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한다.
	-결투/표지/승리	-원강아미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현장자에게 지혜롭게 대처함/ 어려움 속에서도 할락궁이가 탄생한다.
	-주인공에 대한 공격/ 주인공의 구출	-자현장자에게 혹독한 시련을 당함/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붙잡힐 위기에서 벗어난다.
영광 시련	-익명으로 도착/ 거짓 주장	-원강아미는 할락궁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현장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본인은 죽임을 당한다.
	-어려운 임무의 부과/ 성공/ 인지	-할락궁이가 서천꽃밭 꽃감관인 아버지를 찾아가는 모험과 고난의 여정/ 고생 끝에 아버지를 만나는 할락궁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의 희생과 죽음에 대한 내막을 듣는다.
	-악한의 정체 폭로/처벌	-어머니를 살리고 자현장자를 벌할 수 있는 서천꽃을 받음/ 자현장자집으로 귀환하여 서천꽃으로 자현장자를 징치하고 어머니를 살린다.
	-참 주인공에 대한 보상	-아버지는 저승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승의 어머니,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천꽃밭 꽃감관이 된다.

올리크(Axel Olrik)는 구비전승물에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서사시 법칙(epic law)이라고 명명했다. 거기에는 개화(개화)의 법칙, 종결의 법칙, 반복의 법칙, 3의 법칙, 한 장면 2인의 법칙, 대조의 법칙 등 10여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장주근, 2001: 60 재인용). 반면에 장주근(2001)은 본풀이 나름의 법칙을 4개의 법칙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개화의 법칙으로는 먼저 본풀이를 올린다는 인사와 강신의 강청, 그리고 등장 신격의 계보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반복의 법칙이다. 올리크(Olrik)는 반복은 대개 3회로서, 3이라는 수는 신화, 전설, 민담에 술하게 나오며 호머(Homer)의 서사시에도, 고대 아이슬란드의 서사시집 에다(Edda) 등에도 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역시 3자매, 3형제처럼 3회의 되풀이가 많다. 셋째, 대조의 법칙은 선과 악, 빈과 부, 대와 소, 인간과 괴물, 청년과 노인의 대립 등으로서, 서사물의 기본구도이다. 넷째, 종결의 법칙이다. 본풀이는 신화로서 신화가 가지는 원초적 설명성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장주근, 2001: 60-61).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시련의 극복이라는 서사 전개 구조를 갖는 이공본풀이에 장주근이 제시한 대조의 법칙과 종결의 법칙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조의 법칙으로서 이공본풀이의 고난-극복-좌정의 서사 전개에서 화소의 대립에 대한 관계성으로 기본구도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대립구도는 원강아미와 자현장자의 대립과 생명꽃과 수레멸망 악심꽃이 대립에 대한 개입으로 서천꽃이 인간생명을 주관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전개된다.

둘째, 종결의 법칙으로서 이공본풀이의 고난-극복-좌정의 결말에서 “서천꽃밭에 원강아미는 저승 어머니로 들어서서 아기들을 키우고, 사라도령은 저승 아버지가 되어 살림을 하고,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아 꽃감관이 되는데, 그 법으로 할아버지가 살던 곳은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던 곳은 아들이 삽니다(진성기, 1991: 82).”라고 원초적 설명성으로 끝을 맺는다.

전통신화에서 영웅은 사회적 세계의 안락함을 버리고 떠나는데, 종종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그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일면을 발견하곤 한다. 고립과 결핍의 경험이 정신쇠약을 초래하는 순간 영웅은 중요한 통찰을 얻는

다. 성공하면 새롭고 귀중한 무엇을 가지고 귀향할 수 있다(카렌 암스트롱, 2005: 152). 신화의 영웅에 대해 조셉 캠벨은 동화속의 영웅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한다. “동화 속의 영웅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소우주적 승리를 거두고, 신화의 영웅은 세계사적, 대우주적 승리를 거두는 게 보통이다. 또 전자(젊은이, 아니면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멸당하는 아이)는 자신을 압제하던 상대를 이겨내는 데 그치는 반면, 후자는 모험을 통하여 자기한 속한 사회 전체의 소생에 필요한 수단을 가지고 돌아온다(조셉 캠벨, 1999: 52-53).”

이러한 신화 속 영웅의 의미는 이공본풀이에서 인간이 신으로 좌정하는 사라도령, 원강아미, 할락궁이에서 각각 이공신, 여신, 부친탐색 신화소를 내재하며 전개된다.

가난하지만 원강아미와 행복한 삶을 살던 사라도령이 신의 소명을 받고 세상 깊은 곳에 있는 서천꽃밭을 향한 모험을 통해 이공신으로 좌정(후에 저승의 아버지로 좌정)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들인 할락궁이가 고난을 동반한 부친탐색의 통과의례를 거친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공신으로 좌정하고, 원강아미는 사라도령과 할락궁이를 위한 희생의 통과의례를 통해 저승의 어머니로 좌정한다. 따라서 이공본풀이는 인간이 시련을 동반한 통과의례와 캐릭터 각각의 고유의 행동과 속성을 가지는 신화 속 영웅이 비극에서 희극적 결말로 전개되는 대서사시적인 구조와 세계관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사구조에 대한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된 스토리텔링 요소와 이에 적용된 이공본풀이에서 시련의 극복과정을 통해 인간이 신으로 좌정하는 영웅의 대서사시적인 서사구조와 신화가 가지는 원초적 설명성에 대한 고대적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다.

2.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창작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표현하려는 대상을 끊임없이 탐구한다. 장르를 불문하고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끊임없는 사유가 예술 창작의 실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창작물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시대상과 문화 속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반영되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서양신화는 예술적 창작의 원형 모티프로서 상호작용을 하며 각 시대와 문화에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왔다. 무구한 세월 속에 축적된 문자와 시각 이미지의 형상화는 문학과 예술작품을 통한 보편적 공감대와 감응을 이끌어 내면서 문화콘텐츠를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재창조된 신화 스토리텔링은 허구적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 활용도를 지닌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재해석의 끊임없는 반복과 매체의 확장을 통해 풍부한 가치를 지닌 유·무형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현재 다양한 장르에서 제주신화의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면 본풀이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하다. 단기적으로 개인과 단체 창작자의 신화적 사유만으로는 공감대의 저변을 확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정의에 토대한 사유방식에 일방적으로 기대면 신화적 사유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면 창작자의 끊임없는 해석과 확장이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여 문화콘텐츠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 스토리텔링의 사례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에 대한 방향성과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지속적 관심을 창작 관계자들에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에 대해 창작자의 입장에서 제주신화와 서양신화를 비교하여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콘텐츠의 창작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을 위한 이미지 해석과 분석은 창작자가 시각적 이미지 형상화라는 창작을 구현하는 요소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제주신화의 이미지 형상화를 위해 분류·분석된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이미지 형상화라는 시각적 매체의 적용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스토리텔링의 요소에 대입하여 제시하였다.²²⁾

<표 15>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 구현 단계

형상화 단계	내용
본풀이 해석	-창작자의 감응 -선행연구 고찰
스토리텔링 요소를 도출	-스토리텔링 위한 요소 분류 및 분석 -보편적 해석의 고찰과 도출/ 창작자의 재해석적인 요소 도출
이미지 요소를 도출	-도출된 스토리텔링 요소에서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이미지 요소를 도출
창작자의 해석을 매체에서 구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자의 방향성과 목적이 반영된 이미지 형상화 요소로 변용 -매체에 적용

1) 배경의 이미지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은 주인공의 사건과 주제를 내포하는 스토리텔링의 배경의 기능으로서 핵심적인 시간적·공간적 세계이다. 이공본풀이의 서사 전개에서 서천꽃밭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실적 묘사가 부족하다. 주인공들이 이승세계의 사건으로 인해 겪는 시련의 극복에 대한 저승세계에 있는 서천꽃밭과의 관계성에서 시간적·공간적 배경이미지를 분석하고 유추할 수 있다.

서천꽃밭은 인간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면의 성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내면적 공간의 의미도 내포한다. 시련

22)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중심으로 시각적 이미지의 도출을 논의하였고, 스토리텔링 요소에서 창작을 위한 이미지 요소를 도출함에 있어 창작자의 관점 및 역량과 장르에 따라 해석의 범위와 이미지 묘사가 다름을 기본전제로 하였다. 아울러 창작을 위한 해석은 시대에 따른 문화적 시점의 변화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해석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 묘사의 이미지 도출은 창작자의 끝없는 과제로 고찰된다.

의 극복이라는 서사 전개에서 외면적인 구상적 표현의 이미지와 내면적인 추상적 표현의 이미지를 사유할 수 있다.

창작자의 상상력을 더한 이미지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이공본풀이의 핵심적 배경인 서천꽃밭을 저승세계의 하위 범주로 설정해 이승세계와 저승세계로 분류하였고 이에 관련된 배경요소에서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대입하여 이승세계와 저승세계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표 16> 이승세계의 이미지

배경요소	스토리텔링 요소	이승세계 이미지
시 · 공간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적 공간	-제주도 옛 마을풍경/ 자연풍경
	-부자 임진국의 딸 원강아미/ 가난한 김진국의 아들 사라도령	-윗마을(잘사는 집-임진국집)/ 아랫마을(못사는 집-김진국)
	-자현장자 집	-궁궐(자현장자 집)
	-서천꽃밭으로 향함/ 모험과 고난의 여정	-서천꽃밭은 시련의 극복이라는 내·외면적인 성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적·추상적 장면의 이미지/ 험난하고 끝없는 고난의 길을 가는 배경장면의 장소적 이미지
세계관	-무질서: 빈부격차/ 계급사회/ 악의 유래	-빈부격차가 보이는 마을 전경 -종살이 하는 원강아미와 할락 궁이에 대한 배경장면의 장소적 이미지(계급사회) -원강아미를 고문하고 죽이는 자현장자에 대한 배경장면의 장소적 이미지(살인-악의 유래)
주요인물	-사라도령 -원강아미 -할락궁이	-사라도령, 원강아미, 할락궁이 각각의 일대기에서 사건에 연관된 배경장면의 장소적 이미지

<표 17> 저승세계의 이미지

배경 요소	스토리텔링 요소	저승세계 이미지
시·공간	-서천꽃밭	-신이 거주하며 다스리는 공간으로서 신비스러운 공간 이미지 -서천꽃밭의 지형적 공간 이미지: 서천꽃밭의 지형 이미지와 청버드나무, 시냇물, 서천꽃 등 지형을 구성하는 배경 이미지 -15세 이전에 죽은 어린이가 살아가는 공간 이미지
세계관	-저승세계에서 이승세계 인간의 생사 주관	-서천꽃의 효능에 관계하여 다양한 색과 모양의 신비로운 서천꽃밭의 공간 이미지
주요인물	-꽃감관(사라도령, 할락궁이) -저승의 아버지(사라도령) -저승의 어머니(원강아미)	서천꽃밭을 배경으로 신의 성격에 부합되는 배경장면의 공간 이미지

2) 주제와 이미지

이공본풀이와 관련된 제주에서의 큰굿 중에 이공맞이제와 불도맞이제가 행해지며 큰굿에서 신들의 이름과 직능이 함께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제의를 살펴보면 신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세계관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고 믿음이라는 신앙적인 요소를 통해 신화의 근본적인 주제가 제주지역에서 생명력이 유지되며 원시적 사유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신화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의 원천소스라 할 수 있다.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신화의 주제가 내재된 이공본풀이는 이승세계에서 시련의 극복으로 저승세계에서 신으로 좌정하고 이승세계의 악을 징치한다는 신의 직능에 대한 내력으로 원시적 사유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주인공과 신화소를 중심으로 주제의 구성요소인 캐릭터, 배경, 사건 등에서 주

제 이미지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이공본풀이의 주인공과 관련된 주제의 이미지

주인공	관련내용	주제	주제 이미지
사라도령	가난함의 지속→ 행복한 생활→ 이공신 임명→ 모험→ 이공신으로 좌정→ 저승의 아버지로 좌정	고난의 극복과 모험을 통해 신으로 좌정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라도령의 이미지 -힘든 여정의 길이지만 이겨내는 사라도령의 모습과 장면 이미지 -이공신으로 좌정한 이미지 -저승의 아버지로 좌정한 이미지
원강아미	부자의 딸로 태어남→ 사라도령과 결혼→ 남편과 자식을 위한 시련과 희생→ 부활→ 저승의 어머니로 좌정	남편과 자식을 위한 시련과 희생을 통해 신으로 좌정	-가난한 사라도령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강아미 이미지 -남편과 자식을 위해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과 장면 이미지 -부활하는 이미지 -저승의 어머니로 좌정한 이미지
할락궁이	노비 신분으로 태어남→ 탈출→ 부친탐색으로서 서천꽃밭을 향한 고난의 여정→ 서천꽃밭 도착→ 임무수행(서천꽃으로 자현장자의 악을 징치, 어머니를 부활시킴)→ 제2대 이공신으로 좌정	시련의 극복과 서천꽃으로 이승세계의 악을 징치하는 임무완수를 통해 신으로 좌정	-노비로 태어나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밝게 자라는 할락궁이 - 힘든 여정의 길이지만 이겨내는 할락궁이의 모습과 장면 이미지 -서천꽃으로 자현장자를 징치하는 장면 이미지 -어머니를 부활시키는 장면 이미지 -이공신으로 좌정한 이미지

<표 19> 이공본풀이의 화소와 관련된 주제의 이미지

주제	화소	내용	주제 이미지
신의 내력	부친탐색	통과의례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모험을 떠나고, 힘든 여정을 견뎌 내는 모습과 장면 이미지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 이미지
	좌정	인간이 신으로 좌정	-제1대 이공신으로 좌정한 사라도령 -제2대 이공신으로 좌정한 할락궁이 -저승의 아버지로 좌정한 사라도령 -저승의 어머니로 좌정한 원강아미
이승세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원리	서천꽃밭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주화	-주화(呪花)가 가꾸어지는 서천꽃밭의 신비스런 공간 이미지 -주화(呪花)의 효능에 따른 각각의 형상과 색채의 장면 이미지
	이승세계	이승세계에서 악의 유래와 서천꽃으로 악을 징치	-자현장자의 악을 징치하는 수레멀망 악심꽃의 효능이 발휘된 장면 이미지

3) 캐릭터의 이미지

제주신화는 신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로 신들의 이름과 직능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에 있어 캐릭터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이야기 전개에 있어 스토리텔링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이미지는 서사 전개에 따른 다양한 내·외면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 신으로 좌정하는 주인공의 신화적 내면이 다양한 외적표현의 형상으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는 것은 창작자의 끊임없는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캐릭터의 형태에 따라 분류된 이공본풀이의 캐릭터를 사건전개에 대입하여 캐릭터의 대표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표 20> 캐릭터의 형태에 따른 분류와 캐릭터의 이미지

형태		캐릭터	캐릭터 이미지
인간형	주인공	-사라도령 -원강아미 -할락궁이	-주인공의 일대기에서 고난-극복-좌정의 서사 전개에 따른 각각 주인공의 내·외면적 형상과 장면 이미지
	등장인물	-자현장자	-주인공의 적대자로서 자현장자가 일으키는 사건의 형상과 장면 이미지
		-자현장자의 3명의 딸	-의심이 많은 첫째, 둘째 딸, 정이 있는 마음을 간직한 막내딸의 형상과 장면 이미지
		-김진국	-가난한 김진국의 형상과 장면 이미지
		-임진국	-부자 임진국이 딸을 가난한 사라도령에게 시집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형상과 장면 이미지
	신	-저승차사	-이승세계의 인간과 구별되는 저승차사의 형상과 장면 이미지
		-이공신	-이공신으로 좌정한 사라도령 이미지 -이공신을 대물림 받아 좌정한 할락궁이 이미지
		-저승의 아버지	-저승의 아버지로 좌정한 사랑도령 이미지
		-저승의 어머니	-저승의 어머니로 좌정한 원강아미 이미지
	저승인	-15세 이전에 죽은 어린아이	-이승세계와 구별되는 저승세계에 있는 어린이의 형상과 장면 이미지
	동물형	-천리둥이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무섭고 사나운 개의 형상과 장면 이미지
		-만리둥이	-하루에 만리를 달린다는 만리둥이: 천리둥이보다 더 무섭고 사나운 개의 형상과 장면 이미지
-까마귀		-할락궁에게 서천꽃밭을 향하여 방향을 암시하는 존재로서의 이미지	
식물형	-서천꽃밭의 주화(呪花)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다양한 서천꽃의 효능을 상징하는 형태와 색채의 이미지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특성의 판단을 외형적 · 내면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외형적 특성은 외모, 체형 등 외양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특성으로 습관, 동선 등 행동에서 시각적인 신체적 특징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시각적인 신체적 특징과 함께 구사되는 언어의 청각적 특성은 억양, 음성, 발음 등이 행동과 함께 시청각적인 행위적인 신체적 특징으로 인간의 개성적 특성이 관찰된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신체에 직접 착용되는 장신구, 의상 등 다양한 소지품은 가치 개인의 성격, 성향, 직업 등 사회적 관계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의 내면적 특성은 외면적 표현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또한 내면적 특성은 의식적으로 극적인 외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면적 특성은 인간 자아의 내적 특성으로 개인이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갖는다는 성품과 함께 학습과 행위에 영향을 받아 습득하는 성품에서 관찰할 수 있다. 시각적인 신체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얼굴 표정과 눈빛에서 보이는 감정, 행동의 반응에서 보이는 품성, 목소리 톤에서 보이는 감성 등 얼굴과 신체의 외면적 표현에서 개인의 성격과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을 관찰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인간이 시련의 극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신의 이름과 직능을 갖는다. 이러한 서사 전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대처와 행위에서 성격과 성품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창작자는 주인공의 외형적 · 내면적인 특성을 사건과의 상호작용에서 관찰되는 캐릭터의 성격과 성품에서 해석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다.

캐릭터 이미지의 시각적 형상화에 대한 의의는 캐릭터의 신체적인 외면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이 성격과 성품으로 잘 드러나게 생명력을 심어놓는 창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신화에 묘사되는 캐릭터의 생명력 있는 재현을 위한 신화스토리텔링은 신화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해석이 강조되며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함께 창작자의 역량도 반영됨을 알 수 있다.

4) 서사와 이미지

신화스토리텔링에서 이미지의 시각적 형상화는 이미지가 적용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변용이 이루어진다. 미술장르는 이미지의 형상화를 위한 대표

적 시각장르이고 오늘날 다양한 시각매체에 적용되어 순수미술에서 다양한 실용 미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신화이야기는 순수미술에서 평면의 사각 프레임 또는 하나의 조각 작품에 하나의 순간을 묘사한 이미지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 현재 실용미술은 동화책,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에 신화 속 이야기가 서사 전개에 따른 이미지 형상화로 변용되어 창작되고 있다. 또한 실용미술에서도 창작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량이 반영된 작품은 대중적인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사와 이미지가 미술장르(순수미술 · 실용미술)에 적용되는 신화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제주신화의 시각적 이미지 형상화에 관련한 스토리텔링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신화스토리텔링에 대해 논의되었다.

현재 제주신화의 시각적 이미지 형상화에 관련한 스토리텔링은 실용미술장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웹툰, 애니메이션에서 서사의 변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지역 문화콘텐츠를 지향하는 창작이 활성화되면서 제주신화의 변용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신화 문화콘텐츠는 신화의 충실한 재현적 방식과 창작자의 상상력이 풍부하게 적용되는 방식이 있다. 창작자의 관점에서 신화에 대한 접근은 신화적 소재, 주제, 캐릭터 등 모티프로써 창작에 부분적 또는 충실하게 적용하며 서사의 변용을 시도한다. 즉 제주신화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관점에서 신화의 해석과 재창작이 시도되는 활성화가 관건이다.

다음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신화스토리텔링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신화는 역사적 사실로 접근하는 역사화가 아니다. 이를테면 기록된 구비문학의 충실한 이미지 재현은 기록적 · 교육적인 가치에 머무르는 콘텐츠로서, 창작적인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데 한계점이 있다. 전승자의 신화적 사유가 반영된 본풀이는 전승자마다 서사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묘사된다. 하지만 신화의 근본적인 주제와 신의 이름과 직능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신화적 사유는 창작자에게 신화의 근본적인 주제를 간직하면서 신의 이름과 직능에 충실하면서 자유로운 서사적 변용과 이미지형상화가 시도된다.

창작자에게 있어 서사의 변용은 창작물을 이끌어내기 위한 스토리텔링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과정이다. 즉 신화적 사유에 감응하여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 변용

되었을 때 예술적 가치를 지닌 제주신화 문화콘텐츠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요소에서 논의된 배경, 캐릭터, 주제는 서사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요소들이다. 창작자는 이미지 요소들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도출된 배경, 캐릭터, 주제이미지를 순수미술장르에 적용하여 독립적인 작품으로 미적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 또한 서사 전개에 대입되어 이야기가 이미지 전개로 구현되는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으로서 문화콘텐츠적인 가치도 지향할 수 있다.

IV.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의 구현

1.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의 구현 방안

1) 본풀이의 문학적 변용

심방에 의해 구비전승되는 제주신화는 살아 있는 신화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의례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한다. 근대에 채록되어 기록되기 시작한 제주신화를 살펴보면, 과거의 시대상이 충실하게 반영된 재현적중심의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그리스·로마신화는 구전과 문헌신화를 통해 문학으로서 자리 잡았고, 신화적 이미지에 대한 변용을 수없이 거치며 현대문학과 예술창작의 모티프를 제공했다. 그 결과 오늘날 다양한 콘텐츠로 변용되어 국가와 민족, 문화권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공감을 형성하는 신화 스토리텔링의 정수를 보여준다.

서양신화의 변용에 비해 제주신화는 근대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룬 현대의 시대적 흐름과 과거가 교차하는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제주신화 스토리텔링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의적인 의례에서 원형적 해석의 중요성과 함께 일반창작자의 관점에서 제주신화에 대한 사유를 볼 수 있는데, 이에 신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화소 해석과 함께 신화적 사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문화와 신화의 원형성에 다가서려는 창작자의 노력은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새로운 창작작품으로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신의 내력을 보여주는 본풀이의 특성상 이공본풀이를 구성하는 여러 신화소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서사구조와 해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신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의 기본요소로 제시된 배경, 주제, 캐릭터, 서사에 대입되는 이공본풀이의 재해석이 중요하다.

이공본풀이를 회화미술 매체에 적용하기 위해 서사 전개를 열두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도출한 문학적 변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혼돈의 시절 ⇒ ② 하늘의 계시 ⇒ ③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 ⇒ ④ 잃어버린 삶 ⇒ ⑤ 탈출, 희망의 존재 ⇒ ⑥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 ⇒ ⑦ 마지막 관문 ⇒ ⑧ 운명의 만남 ⇒ ⑨ 생명꽃과 악의꽃 ⇒ ⑩ 업보 ⇒ ⑪ 환생 ⇒ ⑫ 신산만산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

장면의 문학적 변용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혼돈의 시절’에서 시·공간적 배경은 대별왕이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바로 잡는 혼돈의 시절이다. 인간세상은 빈부격차, 계급사회 등 차별이 존재하며 인간의 마음에 악이 시작된다. 서천꽃밭은 인간의 악을 징치하는 수레멸망악심꽃이 피는 공간이며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여하는 수많은 효능의 서천꽃이 피는 공간이다. ② ‘하늘의 계시’에서 원강아미는 사라도령과 함께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③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라도령을 떠나보내며 무사히 서천꽃밭에 당도하기를 기도한다. ④ ‘잃어버린 삶’에서 원강아미와 할락궁이는 희망없는 고난의 삶이 묘사된다. ⑤ ‘탈출, 희망의 존재’에서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도움과 희생으로 자현장자의 집을 무사히 탈출한다. ⑥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 할락궁이의 서천꽃밭을 향한 끝없는 여정과 고난을 묘사한다. ⑦ ‘마지막 관문’에서 사라도령은 서천꽃밭을 지키는 문지기인 생명의 나무로 변신하여 할락궁이를 시험하고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한다. ⑧ ‘운명의 만남’에서 사라도령은 아들 할락궁이와 운명적으로 만나고 원강아미의 희생에 대해 말해준다. ⑨ ‘생명꽃과 악의꽃’에서 할락궁이는 꽃감관인 아버지에게서 서천꽃을 받는다. ⑩ ‘업보’에서 자현장자를 징치하는 악의꽃인 수레멸망악심꽃, 웃을꽃, 싸움꽃의 효능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⑪ ‘환생’에서 생명꽃인 뻗오를 꽃, 오장육부 생길 꽃, 살오를 꽃, 숨 트일 꽃 등의 효능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⑫ ‘신산만산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에서 할락궁이가 이공신으로 좌정한다.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위해 변용된 구체적인 장면의 서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① 혼돈의 시절

태초의 빛, 빛은 하늘을 열고 땅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은 생명을 탄생시켰다. 낮과 밤이 생겨나고 이승과 저승이 나뉘기 시작하는 혼돈의 시절, 탐라에 가난한 김진국과 부유한 임진국이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김진국과 임진국은 나이 사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정성을 다해 백일기도를 드렸다. 드디어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은 딸을 낳았다. “내 아들은 사라도령이라 이름 짓겠네.” “내 딸 이름은 원강아미라 불러야겠네.”

사이좋은 김진국과 임진국은 구덕혼사로 사돈의 연을 맺었다.

“자랑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사라도령 원강아미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아긴 자는소리 놈의아긴 우는소리 로구냥”

② 하늘의 계시

세월이 흘러, 열다섯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은 사라도령과 원강아미, 어느덧 스무 살이 된 원강아미는 태기가 있어 몸이 점점 무거워져 갔다. 하지만 행복은 잠깐이었다. 사라도령은 서천꽃밭 꽃감관 벼슬을 임명받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임신한 원강아미를 걱정한 사라도령은 홀로 떠나려 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다는 서천꽃밭으로 혼자 가겠소. 나중에 꼭 데리로 올 터이니 부디 몸조리 잘하시오.” 하지만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낭군님아,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겠습니다.” 사라도령은 원강아미와 함께 서천꽃밭을 향해 떠났다.

③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

걸어도 걸어도, 서천꽃밭을 향한 길은 끝이 없는 길이었다. 임신한 원강아미에겐 힘겨움과 고통의 나날들이었다. “낭군님아,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으니 닭 울음소리가 나는 집에 저를 종으로 팔아 서천꽃밭길 노갯돈 하십시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가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원강아미는 삼백냥, 뱃속의 아이는 백냥 받겠소.”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의 노비가

됐다. 사라도령은 홀로 남겨질 원강아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들을 낳으면 할락궁이라 하시오, 딸을 낳으면 할락댁이라 하시오.” 그리고 얼레빗을 토막 내 반쪽을 건네주었다. “훗날 이것이 필요 할 것이요.” 원강아미는 떠나는 사라도령의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드렸다. “낭군님아! 아프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몸 성히 서천꽃밭 가십시오.”

④ 잃어버린 삶

“원강아미야! 너는 누구냐!” “저는 자현장자님의 노비입니다.” 아름다운 원강아미에게 반한 자현장자는 사라도령이 떠나자 수청을 강요했다. 원강아미는 임신한 몸이라고 하여 고비를 넘겼다. 몇 달 지나고, 원강아미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아 너의 이름은 할락궁이란다” 아비 없는 할락궁이를 바라보는 원강아미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자현장자는 본격적으로 수청을 강요했다. 그때마다 원강아미는 현명한 피를 내어 위기로부터 무사히 벗어났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자현장자는 모자에게 모진 일을 시키며 괴롭혔다. “원강아미야! 할락궁이야! 내가 누구냐!”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하루하루가 늘 슬픔뿐이었다.

⑤ 탈출, 희망의 존재

고난의 세월이 흘러, 할락궁이는 열다섯 살이 되었다. “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원강아미는 한참 동안 할락궁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너도 이제 다 자랐구나, 아버지는 서천꽃밭에 계신단다.” 원강아미는 아버지가 서천꽃밭 꽃감관이라는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증표인 얼레빗 반 토막과 소금에 절인 메밀범벅을 건네주었다. “아들아, 뒷일은 내가 감당 할 테니 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를 찾아 이곳을 어서 떠나거라.” 할락궁이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서천꽃밭을 향해 떠났다. “어머니,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자현장자는 온종일 일을 해야 할 할락궁이가 보이지 않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동이 개를 불렀다. “할락궁이가 안 보이는구나, 당장 잡아 오너라!” 천 리를 눈앞에 두고 천리동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할락궁이는 소금에 절인 메밀범벅 한 덩어리를 천리동에게 던졌다. “천리동이야! 여기까지 오느라 배고프지, 우선 떡이나

먹어라!” 메밀범벅이 어찌나 짜던지 천리둥이는 물을 찾아 떠났고, 그사이 할락궁이는 가까스로 천 리를 벗어났다. 온 힘을 다해 정신없이 달렸다. 이번에는 만 리를 달리는 만리둥이 개가 쫓아왔다. 메밀범벅 덩어리를 다 주고 나서야 만 리를 겨우 벗어났다. 할락궁이를 잡는 데 실패한 자현장자는 크게 분노했다.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들!” 자현장자는 원강아미를 고문하며 사지를 찢어 죽였다. 그리고 시신을 청대밭에 버렸다.

⑥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

달리고 달렸다. 어머니의 죽음도 모른 채.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수만 리를 지나온 할락궁이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까마귀가 나타났다. “까악 까악…….” 까마귀 울음소리에 이끌려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무릎까지 차는 뽕안 물을 만났다. 시린 물살을 헤치고 계속 나아갔다. 한참을 가니 감물색 강물이 어느새 허리를 감싸 흘렀다. 또 한참을 나아가니 핏빛 강물이 목까지 찼다. 핏빛 강물은 온몸을 순식간에 감싸 흘렀다. 온통 세상이 어두운 동굴처럼 보였다. 할락궁이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어머니, 어머니…….”

⑦ 마지막 관문

한 줄기 빛이 아른거릴 때, 까마귀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저 멀리 빛을 내 뿜는 꽃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이 서천꽃밭임을 말하는 듯했다. 겨우 정신을 차린 할락궁이는 빛을 향해 나아갔다. 드디어 서천꽃밭 입구에 간신히 도착했다. 서천꽃밭 꽃감관은 문지기인 생명의 나무로 변신해서 할락궁이를 시험했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저는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살아서 들어온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 “저는 원강아미의 아들 할락궁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천꽃밭 꽃감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거짓이면 저승에서만 살아야 할 것이다! 증표를 가져왔느냐!” 할락궁이는 문지기인 생명의 나무에게 열레빗 한쪽을 보여줬다. 문지기는 다른 반쪽을 꺼내 맞대어 보았다. 정확히 맞았다.

⑧ 운명의 만남

“아들아! 내 자식이 분명 하구나.” 문지기에서 사라도령으로 돌아온 꽃감관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여기까지 길을 안내해준 까마귀는 어머니의 혼이다.” “무릎까지 차는 뽕안 강물은 첫 번째 고문당할 때 흘린 어머니의 피눈물이다.” “허리까지 차는 감물색 강물은 두 번째 고문당할 때 흘린 어머니의 피눈물이다.” “목까지 차는 핏빛 강물은 세 번째 고문당할 때 죽으며 흘린 어머니의 핏물이다.” 할락궁이는 아버지 말을 듣고 나서야 어머니가 자현장자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다.

⑨ 생명꽃과 악의꽃

“아들아! 원수를 갚고, 어머니를 살려내어라.” 아버지는 할락궁이에게 필요한 서천꽃밭 꽃들을 따 주었다. 할락궁이는 우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꽃들과 때죽나무 회초리를 받았다.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 악의 꽃들을 받았다. 할락궁이의 눈가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이제야 모시러 갑니다.”

⑩ 업보

할락궁이는 자현장자를 찾아갔다. “자현장자님,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신 은혜 갚으려고 왔습니다.” 보물을 가져왔다고 말했더니 일가친족들이 모두 모였다. “자현장자님, 보물을 나눠 주겠습니다.” 웃을꽃을 뿌렸다. 그러자 할락궁이를 죽이고 보물을 차지하려던 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끝없이 웃으며 미쳐갔다. 그다음에 싸울꽃을 뿌렸다. 서로 보물을 차지하려고 싸움판이 벌어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레털망약심꽃을 뿌렸다.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죽고 죽이다 모조리 죽었다.

⑪ 환생

“어머니, 할락궁이가 왔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일 뿐이었다. 할락궁이는 청대밭에 묻혀있는 어머니의 유해 앞에 섰다.

흩어져 있는 뼈들을 한데 모아서 뼈오를 꽃을 뿌렸다.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맞추기 시작했다. 오장육부 생길 꽃을 뿌렸다. 뼈 위에 오장육부가 생겨났다. 살오를 꽃을 뿌렸다. 뼈와 오장육부 위로 살들이 돋아나며 피부를 만들었다. 숨 트일 꽃을 뿌렸다. 피부에 핏줄이 생기고 혈색이 돌며 맥박이 뛰었다. 마지막으로 매죽나무 회초리로 세 번 두드리니 원강아미가 눈을 떴다. “아들아, 내가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잔 것 같구나.”

⑫ 신산만산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

사라도령과 원강아미의 아들인 할락궁이,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채 어머니와 모진 세상살이를 살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은 결국 할락궁이를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는 끝없는 길 위에서, 마음속 애달픈 사연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만들어가며 서천꽃밭에 도착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드디어 할락궁이는 어머니를 모셔 서천꽃밭으로 갔다. 아버지는 저승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승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산만산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이 되었다.

2) 문학 이미지의 형상화를 위한 변용

신화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회화 미술의 수작업과 디지털 방식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시각매체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공본풀이에 내재한 생명과 죽음 그리고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등을 구현하기 위해 이공본풀이의 변용된 서사적 내러티브를 회화 미술장르 매체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이미지로 도출한다.

창작자의 재해석으로 변용된 문학의 장면 이미지와 형상화 요소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변용된 문학의 장면 이미지와 형상화 요소에 대한 분류

변용된 문학의 장면 이미지	형상화 요소
① 혼돈의 시절	-이승과 저승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배경/ 대별왕이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
② 하늘의 계시	-부부가 된 사라도령과 원강아미, -차사
③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	-헤어지는 부부 -기도하는 원강아미
④ 잃어버린 삶	-종살이 하는 원강아미 -할락궁이 탄생 -원강아미와 할랑궁이의 고난
⑤ 탈출, 희망의 존재	-탈출하는 할락궁이, -천리동이, 만리동이
⑥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끝없는 길 -피의 강
⑦ 마지막 관문	-까마귀, -서천꽃밭 문지기, -증표인 열레빗
⑧ 운명의 만남	-아버지인 꽃감관과의 만남, -기쁨과 슬픔
⑨ 생명꽃과 악의꽃	-생명꽃과 악의꽃 -이승으로 귀환
⑩ 업보	-자현장자에게 복수/ 악의 꽃의 효능
⑪ 환생	-어머니 원강아미의 환생, -생명꽃의 효능
⑫ 신산만산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	-꽃감관 할락궁이 -저승의 아버지 사라도령 -저승의 어머니 원강아미

2.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 창작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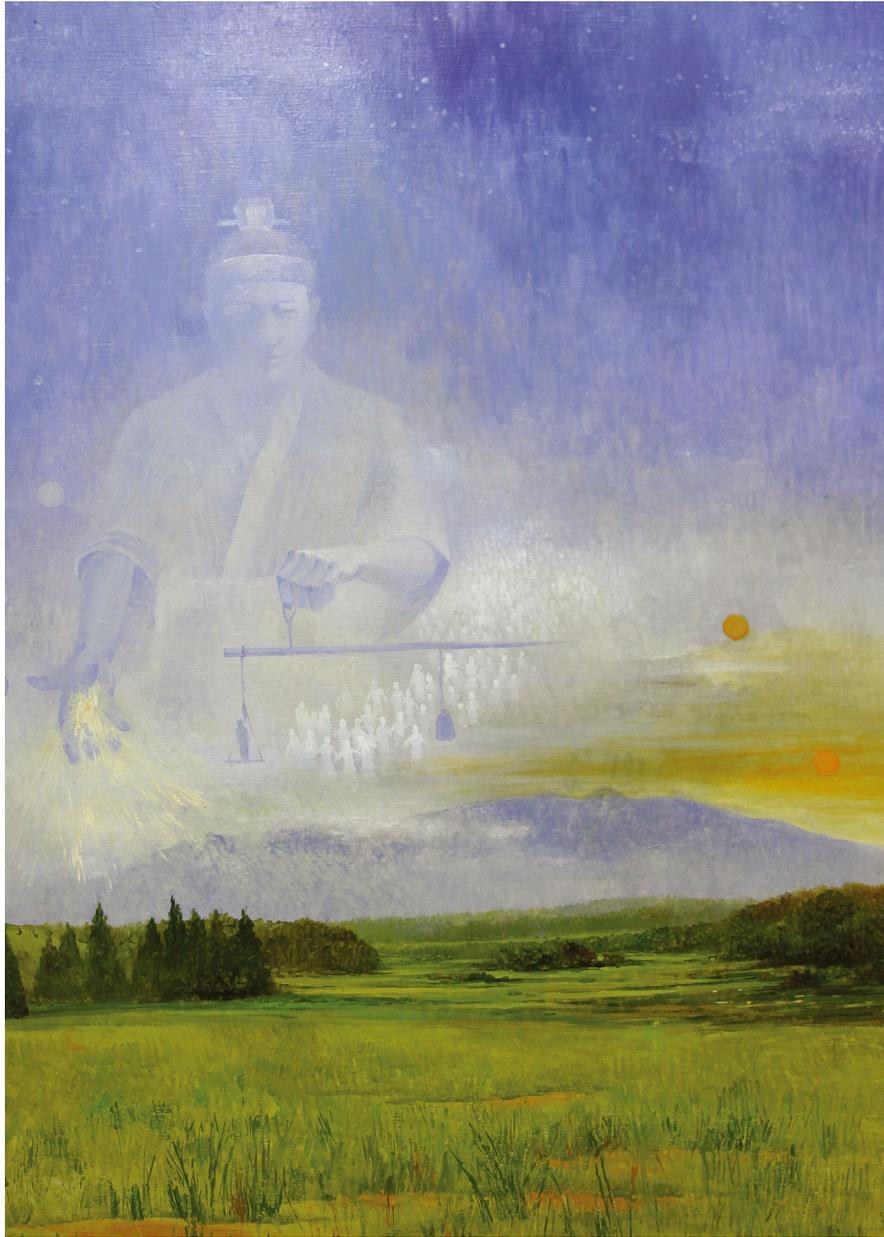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이공본풀이 창작의 구현을 변용된 문학의 장면이미지에서 도출된 형상화요소를 회화 미술장르 매체에 적용하였고, 서사적 내러티브는 함축적 의미의 이미지 장면으로 형상화되었다.²³⁾

1) 혼돈의 시절

태초의 빛,
빛은 하늘을 열고 땅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은 생명을 탄생시켰다.
낮과 밤이 생겨나고
이승과 저승이 나뉘기 시작하는 혼돈의 시절,
탐라에 가난한 김진국과 부유한 임진국이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김진국과 임진국은 나이 사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정성을 다해 백일기도를 드렸다.

드디어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은 딸을 낳았다.
“내 아들은 사라도령이라 이름 짓겠네.”
“내 딸 이름은 원강아미라 불러야겠네.”
사이좋은 김진국과 임진국은 구덕혼사로 사돈의 연을 맺었다.
“자랑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사라도령 원강아미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아긴 자는소리 놈의아긴 우는소리 로구낭”

23) 이공본풀이 창작의 구현에 서술된 글과 그림은 연구자가 2013년 4월8일에서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개최한 ‘이공본풀이-서천꽃밭이야기’ 개인전(스토리북, 발행인: 강동균, 글/그림: 강동균)을 참고했다.



<그림 1> '혼돈의 시절'에서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바로잡는 대별왕²⁴⁾

24) 제주도 무속의 곳에서 구연되는 '천지왕본풀이'에 천지창조와 자연의 질서를 바로잡는 이야기가 불려진다. '혼돈의 시절'은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이 인간의 무게를 재어 백근이 넘으면 인간세상으로 보내고 백근이 안 넘으면 저승으로 보내는 장면이다. 이 시기의 혼란한 저승과 이승의 장면을 제주도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대별왕이 행하는 구체적 사건으로 묘사되었다.

2) 하늘의 계시

세월이 흘러,
열다섯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은 사라도령과 원강아미,
어느덧 스무 살이 된 원강아미는 태기가 있어 몸이 점점 무거워져 갔다.
하지만 행복은 잠깐이었다.
사라도령은 서천꽃밭 꽃감관 벼슬을 임명받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임신한 원강아미를 걱정한 사라도령은 홀로 떠나려 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다는 서천꽃밭으로 혼자 가겠소.
나중에 꼭 데리로 올 터이니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하지만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낭군님아,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겠습니다.”
사라도령은 원강아미와 함께 서천꽃밭을 향해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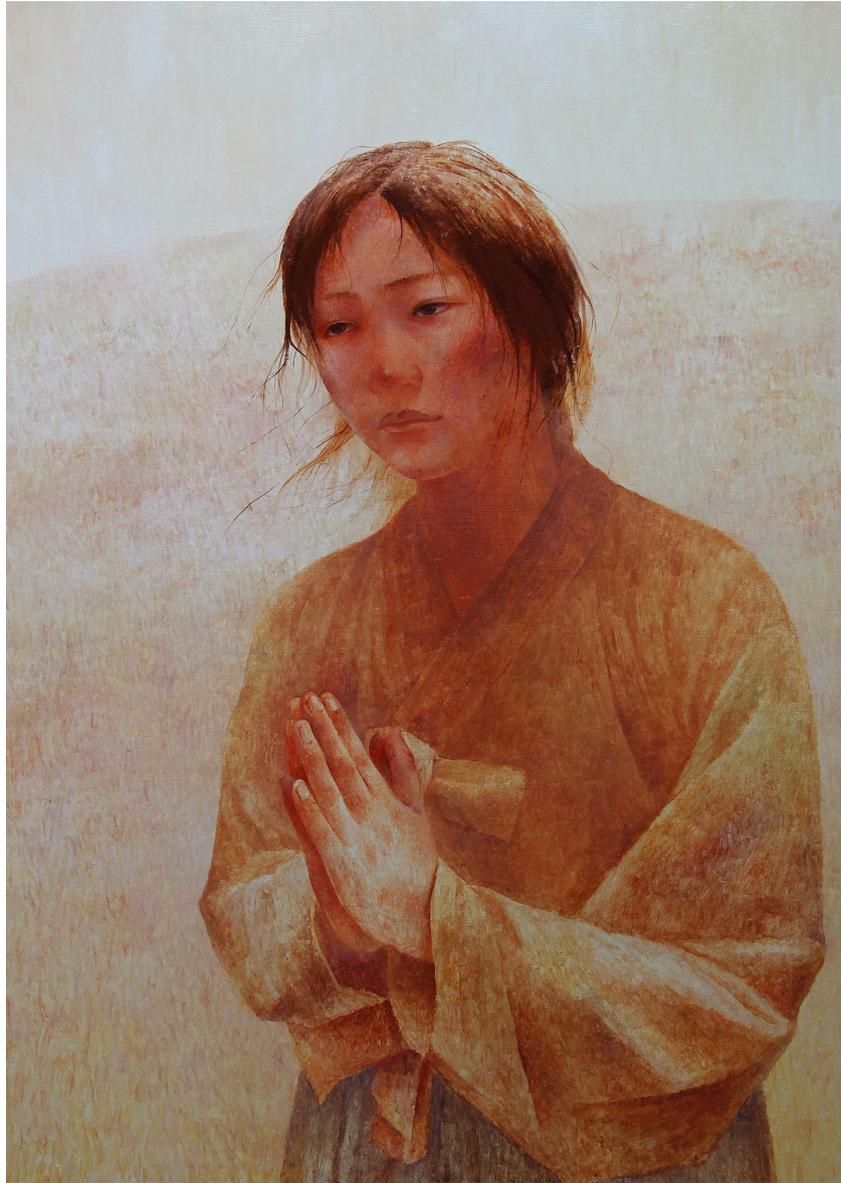


<그림 2> ‘하늘의 계시’에서 원강아미²⁵⁾

25) ‘하늘의 계시’에서 대표적 장면이미지는 15세 전후의 원강아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사라도령과 할락궁이가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음을 사유하는 과정에서 나온 장면 이미지로서, 창작자의 의중이 반영된 장면 이미지이다.

3)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

걸어도 걸어도,
서천꽃밭을 향한 길은 끝이 없는 길이었다.
임신한 원강아미에겐 힘겨움과 고통의 나날들이었다.
“낭군님아,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으니
닭 울음소리가 나는 집에 저를 종으로 팔아 서천꽃밭길 노잣돈 하십시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가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원강아미는 삼백냥, 뱃속의 아이는 백냥 받겠소.”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의 노비가 됐다.
사라도령은 홀로 남겨질 원강아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들을 낳으면 할락궁이라 하시오,
딸을 낳으면 할락댁이라 하시오.”
그리고 얼레빗을 토막 내 반쪽을 건네주었다.
“훗날 이것이 필요할 것이요.”
원강아미는 떠나는 사라도령의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드렸다.
“낭군님아! 아프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몸 성히 서천꽃밭 가십시오.”



<그림 3>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의 원강아미²⁶⁾

26)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는 원강아미가 남편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원하는 장면으로서, 희생이라는 내면적 슬픔과 앞으로 원강아미가 겪게 될 고난의 운명을 함축적인 의미의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4) 잃어버린 삶

“원강아미야! 너는 누구냐!”

“저는 자현장자님의 노비입니다.”

아름다운 원강아미에게 반한 자현장자는

사라도령이 떠나자 수청을 강요했다.

원강아미는 임신한 몸이라고 하여 고비를 넘겼다.

몇 달 지나고, 원강아미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아 너의 이름은 활락궁이란다.”

아비 없는 활락궁이를 바라보는 원강아미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자현장자는 본격적으로 수청을 강요했다.

그때마다 원강아미는 현명한 피를 내어 위기로부터 무사히 벗어났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자현장자는 모자에게 모진 일을 시키며 괴롭혔다.

“원강아미야! 활락궁이야! 내가 누구냐!”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하루하루가 늘 슬픔뿐이었다.



<그림 4> '잃어버린 삶'에서 원강아미와 할락궁이²⁷⁾

27) '잃어버린 삶'은 원강아미와 아들 할락궁이가 자현장자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 장면 이미지이다. 자현장자의 괴롭힘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은 희망이 없는 삶으로 형상화되었다.

5) 탈출, 희망의 존재

고난의 세월이 흘러,

할락궁이는 열다섯 살이 되었다.

“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원강아미는 한참 동안 할락궁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너도 이제 다 자랐구나, 아버지는 서천꽃밭에 계신단다.”

원강아미는 아버지가 서천꽃밭 꽃감관이라는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증표인 열레빗 반 토막과 소금에 절인 메밀범벅을 건네주었다.

“아들아, 뒷일은 내가 감당 할 테니 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를 찾아 이곳을 어서 떠나거라.”

할락궁이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서천꽃밭을 향해 떠났다.

“어머니,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자현장자는 온종일 일을 해야 할 할락궁이가 보이지 않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동이 개를 불렀다.

“할락궁이가 안 보이는구나, 당장 잡아 오너라!”

천 리를 눈앞에 두고 천리동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할락궁이는 소금에 절인 메밀범벅 한 덩어리를 천리동에게 던졌다.

“천리동이야! 여기까지 오느라 배고프지, 우선 떡이나 먹어라!”

메밀범벅이 어찌나 짜던지 천리동이는 물을 찾아 떠났고,

그사이 할락궁이는 가까스로 천 리를 벗어났다.

온 힘을 다해 정신없이 달렸다.

이번에는 만 리를 달리는 만리동이 개가 쫓아왔다.

메밀범벅 덩어리를 다 주고 나서야 만 리를 겨우 벗어났다.

할락궁이를 잡는데 실패한 자현장자는 크게 분노했다.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들!”

자현장자는 원강아미를 고문하며 사지를 찢어 죽였다.

그리고 시신을 청대밭에 버렸다.



<그림 5> '탈출, 희망의 존재'에서 원강아미, 천리둥이와 만리둥이²⁸⁾

28) '탈출, 희망의 존재'에서 원강아미는 남편에 이어 아들도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하나, 정작 본인은 자현장 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혼자 남겨진 원강아미의 비애를 형상화한 장면이다. 천리둥이와 만리둥이는 신화 속 동물이며 상상력으로 형상화 되었다.

6)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

달리고 달렸다. 어머니의 죽음도 모른 채.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수만 리를 지나온 할락궁이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까마귀가 나타났다.
“까악 까악…….”
까마귀 울음소리에 이끌려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무릎까지 차는 뽕얀 물을 만났다.
시린 물살을 헤치고 계속 나아갔다.
한참을 가니 감물색 강물이 어느새 허리를 감싸 흘렀다.
또 한참을 나아가니 핏빛 강물이 목까지 찼다.
핏빛 강물은 온몸을 순식간에 감싸 흘렀다.
온통 세상이 어두운 동굴처럼 보였다.
할락궁이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어머니, 어머니…….”



<그림 6>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²⁹⁾

29)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는 서천꽃밭을 향한 할락궁이의 끝없는 여정을 강조하였다. 같은 배경적 장면에 시간의 흐름을 대비시켜 끝이 없는 반복적 의미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7) 마지막 관문

한 줄기 빛이 아른거릴 때,
까마귀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저 멀리 빛을 내 뿜는 꽃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이 서천꽃밭임을 말하는 듯했다.
겨우 정신을 차린 할락궁이는 빛을 향해 나아갔다.
드디어 서천꽃밭 입구에 간신히 도착했다.
서천꽃밭 꽃감관은 문지기인 생명의 나무로 변신해서 할락궁이를 시험했다.
“귀신이나, 사람이냐?”
“저는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살아서 들어온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
“저는 원강아미의 아들 할락궁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천꽃밭 꽃감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거짓이면 저승에서만 살아야 할 것이다!
증표를 가져왔느냐!”
할락궁이는 문지기인 생명의 나무에게 열레빗 한쪽을 보여줬다.
문지기는 다른 반쪽을 꺼내 맞대어 보았다.
정확히 맞았다.



<그림 7> ‘마지막 관문’에서 열레빗³⁰⁾

30) ‘마지막 관문’에서 열레빗은 원강아미를 증명하는 신표이다. 사물에 대한 이미지 묘사는 신표라는 상징성을 반영하여 창작자의 상상력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림 8> '마지막 관문'에서 문지기인 생명나무³¹⁾

31) '마지막 관문'에서 문지기인 생명나무는 창작자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이다.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이 서천꽃밭을 보호하는 관문의 수호신으로 변신한 모습이다. 신화적 공간인 서천꽃밭의 이미지에 대해 기존의 서사무가에 창작자의 사유를 반영해 창조한 형상이다.

8) 운명의 만남

“아들아! 내 자식이 분명 하구나.”

문지기에서 사라도령으로 돌아온 꽃감관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여기까지 길을 안내해준 까마귀는 어머니의 혼이다.”

“무릎까지 차는 뽕안 강물은

첫 번째 고문당할 때 흘린 어머니의 피눈물이다.”

“허리까지 차는 감물색 강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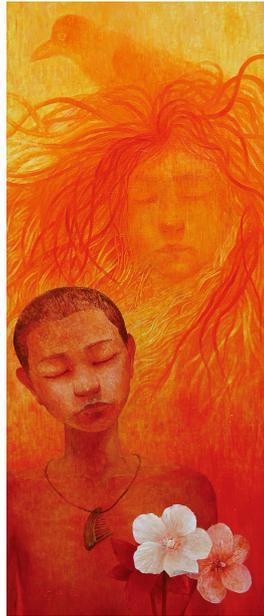
두 번째 고문당할 때 흘린 어머니의 피눈물이다.”

“목까지 차는 핏빛 강물은

세 번째 고문당할 때 죽으며 흘린 어머니의 핏물이다.”

할락궁이는 아버지 말을 듣고 나서야

어머니가 자현장자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림 9> ‘운명의 만남’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할락궁이³²⁾

32) ‘운명의 만남’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할락궁이는 ‘운명의 만남’ 이미지가 함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아버지와 만남, 까마귀, 서천꽃, 할락궁이와 아버지의 내면적 감정 등 서사의 내러티브가 한 장면에 묘사되었다.

9) 생명꽃과 악의 꽃

“아들아! 원수를 갚고, 어머니를 살려내어라.”

아버지는 할락궁이에게 필요한 서천꽃밭 꽃들을 따 주었다.

할락궁이는 우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꽃들과 때죽나무 회초리를 받았다.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 악의 꽃들을 받았다.

할락궁이의 눈가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이제야 모시러 갑니다.”



<그림 10> ‘생명꽃과 악의꽃’에서 할락궁이가 서천꽃을 받는 장면³³⁾

33) ‘생명꽃과 악의꽃’에서 생명꽃은 원강아미를 살리기 위한 꽃으로 뻘오를 꽃, 오장육부 생길 꽃, 살오를 꽃, 슈트일 꽃이다. 악의꽃은 옷을꽃, 싸울꽃, 수레말망악심꽃이다. 서천꽃을 손에 든 할락궁이의 형상은 제주의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할락궁이의 내면적 심상이 외면적인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형상화되었다.

10) 업보

할락궁이는 자현장자를 찾아갔다.

“자현장자님,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신 은혜 갚으려고 왔습니다.”

보물을 가져왔다고 말했더니 일가친족들이 모두 모였다.

“자현장자님, 보물을 나눠 주겠습니다.”

웃을꽃을 뿌렸다.

그러자 할락궁이를 죽이고 보물을 차지하려던 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끝없이 웃으며 미쳐갔다.

그 다음에 싸울꽃을 뿌렸다.

서로 보물을 차지하려고 싸움판이 벌어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레멸망약심꽃을 뿌렸다.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죽고 죽이다 모조리 죽었다.



<그림 11> ‘업보’에서 싸울꽃, 수레멸망약심꽃³⁴⁾

34) ‘업보’에서 악의꽃은 웃을꽃, 싸울꽃, 수레멸망약심꽃이다. 싸울꽃, 수레멸망약심꽃은 꽃의 외형적 이미지가 아니고 꽃의 효능과 관련한 내면적 이미지로 창작자의 사유가 반영되어 형상화되었다.

11) 환생

“어머니, 할락궁이가 왔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일 뿐이었다.

할락궁이는 청대밭에 묻혀있는 어머니의 유해 앞에 섰다.

흩어져 있는 뼈들을 한데 모아서

뼈오를 꽃을 뿌렸다.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맞추기 시작했다.

오장육부 생길 꽃을 뿌렸다.

뼈 위에 오장육부가 생겨났다.

살오를 꽃을 뿌렸다.

뼈와 오장육부 위로 살들이 돋아나며 피부를 만들었다.

숨 트일 꽃을 뿌렸다.

피부에 핏줄이 생기고 혈색이 돌며 맥박이 뛰었다.

마지막으로 때죽나무 회초리로 세 번 두드리니

원강아미가 눈을 떴다.

“아들아, 내가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잔 것 같구나.”



<그림 12> ‘환생’에서 원강아미에게 생명의 꽃을 뿌리는 장면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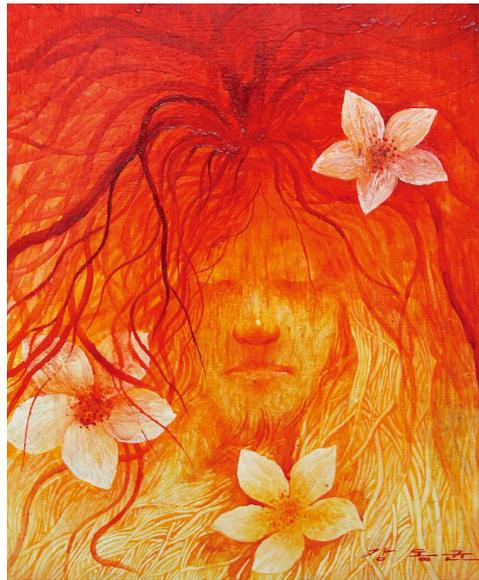


<그림 13> ‘환생’에서 다시 살아난 원강아미³⁶⁾

- 35) ‘환생에서’ 원강아미에게 생명의 꽃을 뿌리는 장면은 할락궁이가 원강아미를 살리기 위해 생명꽃인 뽕오를 꽃, 오장육부 생길 꽃, 살오를 꽃, 슈트일 꽃을 차례로 뿌리는 장면으로 원강아미의 형상이 구체적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 36) ‘환생에서’ 다시 살아난 원강아미는 생명꽃을 들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의 이미지로 형상화 되었다. 다시 생명을 얻는 원강아미의 순간적인 장면이 묘사되었다. 내면적 심상이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이미지의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2) 신산만산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

사라도령과 원강아미의 아들인 할락궁이,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채 어머니와 모진 세상살이를 살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은
결국 할락궁이를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는 끝없는 길 위에서,
마음속 애달픈 사연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만들어가며
서천꽃밭에 도착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드디어 할락궁이는 어머니를 모셔 서천꽃밭으로 갔다.
아버지는 저승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승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산만산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이 되었다.



<그림 14> ‘이공신’으로 좌정한 할락궁이³⁷⁾

37) ‘이공신’으로 좌정한 할락궁이의 형상은 꽃감관이라는 신화적 이미지에 대한 창작자의 사유가 반영되어 형상화되었다. 창작자는 고난-극복-좌정이라는 서사의 텍스트에서 내면적, 외면적 요소와 신화적 사유에 대한 감응이 반영되어 캐릭터의 이미지 형상화로 창작된다. 아울러 신화적 사유의 결과물로서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캐릭터의 이미지 형상화도 구현해야 할 과제로 남겨진다.

V. 결론

신화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신들과 인간의 이야기로서 구전되고 창작자에 의해 문화예술로 육화(肉化)되고 있다. 신화 자체가 거대하고 폭넓은 다원적 상징을 내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스토리텔링이다. 따라서 창작자에게 신화의 모티프는 스토리텔링의 원천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구비전승되는 제주 무속신화에 대한 매력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원석은 창작자에 의해 가공되어 보석으로 탄생하며, 창작자에 따라 보석의 모양도 다양하게 가공될 것이다. 그리고 창작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와 노력에 의해 가공된 원석은 보석의 가치를 뛰어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신화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와 신화를 바라보는 창작자의 자세와 신화적 사유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제주신화 이공본풀이의 이미지형상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논의해 보았다.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이공본풀이에 접근하는 방식과 해석을 살펴보고,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추출하고 분석된 요소를 해석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해석된 이야기를 창작자에 의도에 따라 변용한다. 변용된 이야기는 매체에 적용되어 이야기의 서사 전개에 부합되는 이미지로 도출되었다. 창작자가 신화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기 위한 방법과 적용에 대한 연구이며, 최종적으로 창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문학적 변용에 회화 미술이라는 매체를 적용하여 이공본풀이 스토리북을 구현하고 사례로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신화소의 해석과 본풀이의 전승과 서사를 검토하였다. 이공본풀이의 신화소는 여신, 부친탐색, 서천꽃밭으로 분류하였고, 신화소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의 문화적 요소와 문화원형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창작자의 원시적이고 고대적인 신화적 사유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신화소의 해석은 인류학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시대성에 따른 상호적인 여러 상황을 전제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기본적인 자세로서 수반되며, 이러한 노력은 신화적 사유에 바탕을 둔 접근을 시도할 때 본질에 근접하

는 풍부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서사는 기존의 채록본을 살펴보고, 본풀이의 원형성에 대해 기존 선행연구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검토하였다.

둘째, 제주신화 이공본풀이의 스토리텔링에 있어 변용에 필요한 요소를 분류·분석하고, 창작자의 의도를 이미지형상화를 위한 요소에 적용하였다. 우선 스토리텔링을 위한 요소를 배경, 주제, 캐릭터, 서사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요소에서 창작자가 스토리텔링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매체의 요소를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셋째, 이미지의 시각적 형상화를 위해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분석·적용하여 서사의 변용을 도출하였다. 이공본풀이의 고난-극복-좌정의 문학적 변용은 ① ‘혼돈의 시절’ ⇒ ② ‘하늘의 계시’ ⇒ ③ ‘이별, 고난의 길 위에서’ ⇒ ④ ‘잃어버린 삶’ ⇒ ⑤ ‘탈출, 희망의 존재’ ⇒ ⑥ ‘절망, 끝없는 길 위에서’ ⇒ ⑦ ‘마지막 관문’ ⇒ ⑧ ‘운명의 만남’ ⇒ ⑨ ‘생명꽃과 악의 꽃’ ⇒ ⑩ ‘업보’ ⇒ ⑪ ‘환생’ ⇒ ⑫ ‘신산만산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의 전개구조로 스토리텔링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공본풀이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통해, 창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주제와 서사는 시각적 미술매체에 적용되어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신화 이공본풀이의 서사에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적용하여 창작자의 매체에 적용되는 변용을 도출하고 시각적 형상화를 시도한다. 즉 창작에 대한 과정을 분석하고 구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수많은 제주신화 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창작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창작된 이미지는 신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다른 장르에 작용하는 창작의 모티프로 활용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제주신화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신화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적 해석과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승자와 예술가들에 의해 축제, 공연, 미술, 문학, 연극, 마당극, 영상,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서 변용이 시도되고 있다. 그리스·로마신화의 사례와 비교하면 신화에 대한 무수한 콘텐츠는 무구한 역사성에 수반한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제주신화와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다. 신화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가치와 감응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성의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알

게 된다. 따라서 제주신화에 대한 접근과 해석은 매개자의 신화적 사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여러 장르에서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구현하는 과제가 남겨진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제주신화의 스토리텔링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안목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화콘텐츠 창작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로버트 A. 존슨 (2006), 고희경 역, 『신화로 읽는 여성성』, 서울: 동연.
- 이두현, 장주근, 이광규 (2004), 『한국 민속학 개설』, 서울: 일조각.
-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역락.
-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서울: 문학과지성사.
-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 백산서당.
- 조정래 (2010), 『스토리텔링 육하원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진성기 (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서울: 민속원.
- 조셉 캠벨 (1999),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서울: 민음사.
- 카렌 암스트롱(2005), 이다희 역, 『신화의 역사』, 과주: 문학동네.
- 최혜실 (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허남춘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서울: 보고사.
- 현용준 (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과주: 집문당.
- 현용준 (1996),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논문》

- 김미정 (2012), 「제주 삼승할망본풀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수연 (2005), 「한국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문학적 변용 비교」, 『인문학연구원 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김정희 (2009), 「스토리텔링 구성 전략 연구: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개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탁환 (2008), 「디지털시대 전통 기록과 스토리텔링 연구」, 『국학연구』 제 12집, 한국국학진흥원.

- 노영근 (2003), 「신화와 친부탐색 모티프」, 『어문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배영동 (2005), 「문화콘텐츠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
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 서대석 (2000), 「21세기 구비문학 연구의 새로운 관점」, 『古典文學研究』 제
18호, 한국고전문학회.
- 선미라 (2006), 「원형 · 신화 · 콘텐츠」,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0호, 한국고
전문학회.
- 송태현 (2009), 「신화와 문화콘텐츠」, 『인문과학연구』 제22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신연우 (2010), 「여성담담층 관점에서의 초공 · 이공 ·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
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유효철 (2004),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
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수자 (1993),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이공본
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 『제주도연구』 제10집, 제주학회.
- 이수자 (2009),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 『구비문학연구』 제28
집, 한국구비문학회.
- 차가희 (1998), 「한국 구비전승의 여신화소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최원오 (2007), 「한국 무속신화의 콘텐츠 활용 방안 점검」, 『한국문학논총』
46집, 한국문학회.
- 최혜실 (2002), 「문화산업과 인문학, 순수예술의 소통방안을 위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130집, 국어국문학회.

《웹사이트》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